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 석사학위 논문

1975년 이후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 관계

**An Analysis on the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North Korea after 1975**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원티타오쓰엉

**An Analysis on the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North Korea after 1975**

A Thesis Presented

By

NGUYEN THI THAO SUONG

To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Master's Degree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August 2020

# 1975년 이후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 관계

지도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0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원티타오쓰엉

원티타오쓰엉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08월

위 원 장 Erik Mobernd (인)

부 위 원 장 김병로 (인)

위 원 박태균 (인)

# **An Analysis on the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North Korea after 1975**

Professor Park Tae Gyun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August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Nguyen Thi Thao Suong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Nguyen Thi Thao Suong

August 2020

Chair Erik Mobernd (Seal)

Vice Chair Kim Byeong Ro (Seal)

Examiner Park Tae Gyun (Seal)



Handwritten signatures in black ink are present next to the names of the examiners. The signature for Erik Mobernd is the most prominent, followed by Kim Byeong Ro and Park Tae Gyun.

<국문초록>

# 1975년 이후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 관계

원티타오쓰엉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본 연구는 197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5년동안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는데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국제관계 이론에 의한 역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1차 자료, 2차 자료들을 이용하여 양국 외교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시간의 틀은 197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이 시간동안 어떤 국제 배경에서 양국관계가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북한과 베트남 관계의 성격, 양국 간 존재하는 이해 관계들을 총괄하여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양국 관계 간 일어난 사건들을 다섯가지 특정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필자는 첫번째 시기는 1975년 ~1978년- ‘혈맹에서 전통적인 관계 유지 수준으로 전락’, 두번째 시기는 1979년~1993년-

‘실제적 관계 악화, 도이머이로 인한 정치적 경계, 경제 교역량 증가’, 세번째 시기는 1994년~1999년- ‘지속적 불편한 관계’, 네번째 시기는 2000년~2011년- ‘안정적 관계 회복, 적극적 우호협력관계 재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현재-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연대의식으로부터 탈출하여 실용주의 노선으로’ 으로 각각 칭하였다. 각 시기에 양국 상호 방문 역사 기록, 여러 측면에 대한 협력을 서술함과 동시에 내부적 요인과 중국, 소련, 미국, 한국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적 변수들을 제시하여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였다.

1975년~1978년- ‘혈맹에서 전통적인 관계 유지 수준으로 전략’ 의 시기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내부 요소로 양국 정치 체제에서 생겨난 연대의식과 북한 내부 상황과 베트남 사회주의 건설 성과라는 계기를 활용한 북한의 권력 강화 의지 등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보았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베트남 통일 이후 한국인들의 송환문제로 인한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밝혔다.

1979년~1993년대- ‘실제적 관계 악화, 도이머이로 인한 정치적 경계, 경제 교역량 증가’ 의 시기에는 내부적 요소로서 양국 내부 정책 즉 베트남 정부가 택하고자 한 진로, 베트남 내부 상황에 대해 주목하여 분석하는 것이 맞으나 역시 베트남 정부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요인도 외부적인 요인인 세계 정세이므로 본 논문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 결정자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동시에 이 정책들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들도 살펴보았다. 외부적 요인은 당시 세계 정치 상황인데 1979년부터 1993년까지의 시기는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몰락, 소련의 붕괴, 세계의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각국 정책 등은 양국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본 논문은 이 시기 양국 관계를 통괄하기 위해 북한과 베트남의 상호 방문 및 협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중월 관계 분위기 속에 전개된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베트남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 그리고 이와 같이 전개된 이해 관계들을 같이 살펴보았다.

1994년~1999년- ‘지속된 불편한 관계’ 시기에 들어서면서 양국 관계에 있어 이전 시기와 유사한 분위기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와 북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양국은 지속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2000년~2011년- ‘안정적 관계 회복, 적극적 우호협력관계 재개’ 시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 안정적인 관계 회복과 전통적인 우호관계 재개의 단계로 다시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베 관계도 북한.아세안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 시기에 북한이 아세안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의사를 북한 내부적 요인으로 간주하여 북한.아세안 협력 관계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2012년~현재-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연대의식으로부터 탈출하여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2011년에 들어서는 최고위층 인사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이어져 양국간 우호관계가 다시 공고해지며 방문 횟수도 늘어났다. 실질적 협력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전보다 활발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양국 전통적인 우호 협력관계가 재확인되고 기존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연대의식으로부터 탈출하고 국가간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징후들이



이전 시기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시기에 베트남의 개혁개방 성과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태도를 내외적 요인으로 간주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할 때 여러 자료들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의 대상 기간이 4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각 시기에 대해 보다 깊은 관점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지만 총괄적인 관점을 제공하며 추후 연구들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핵심어:** 내외적 요인, 전통적인 관계 유지, 실제적 관계 악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연대의식으로부터의 탈출, 북.베 관계의 성격

**학번:** 2017- 24837

# 목차

I.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7
3.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자료 .....	10
II. 북한과 베트남의 대공산주의 국가 외교정책 .....	16
1. 베트남의 대공산주의 국가 외교 정책 .....	16
2. 북한의 대공산주의 국가 외교정책 .....	22
III. 베트남과 북한 외교 관계 .....	27
1. 1975 년~1978 년대: 혈맹에서 전통적인 관계 유지 수준으로 전략 ...	28
1) 베트남과 북한의 상호방문 및 협력 .....	30
2) 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에서부터 정치 권력 강화로 .....	36
3) 통일 이후 베트남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송환 문제 .....	41
2. 1979 년~1993 년대: 실제적 관계 악화, 도이머이로 인한 정치적 경계, 경제 교역량 증가 .....	42
1) 베트남과 북한의 상호방문 및 협력 .....	44
2)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	50
3) 베트남 개혁개방 노선 채택 .....	60
(1) 소련 붕괴, 사회주의 몰락 및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 .....	61

(2) 한-베 외교 관계 수립 .....	69
3. 1994 년~1999 년: 지속적 불편한 관계 .....	71
1) 베트남과 북한의 상호방문 및 양국의 협력 .....	72
2) 베트남의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북한 고난의 행군 .....	74
4. 2000 년~2011 년: 안정적 관계 회복, 적극적 우호협력관계 재개 ....	78
5. 2012- 현재: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연대의식으로부터 탈출하여 실용주의 노선으로 .....	82
1) 베트남과 북한의 상호방문 및 양국의 협력 .....	83
2) 베트남 개혁개방 모델 및 양국관계 전망 .....	86
IV. 결론 .....	91
1. 연구 결과 .....	91
2. 연구의 의미 및 한계점 .....	100
참고문헌 .....	101
ABSTRACT .....	109

도표목차

<표 1>: 베트남 인사의 방북 (1975~1978).....	30
<표 2>: 북한 인사의 베트남 방문 (1975~1978).....	31
<표 3>: 베트남과 북한의 기타 협력 및 교류 활동 (1975~1978).....	31
<표 4>: 베트남과 북한 간의 협정 (1975~1978).....	33
<표 5>: 베트남 인사의 방북 (1979~1993).....	45
<표 6>: 북한 인사의 베트남 방문(1979~1993).....	45
<표 7>: 베트남과 북한 간의 협정 (1979~1993).....	47
<표 8>: 북한의 대베트남 수입 및 수출 현황(1979~1993).....	48
<표 9>: 베트남의 대북한 수입 및 수출 현황(1979~1993).....	48
<표 10>: 베트남 인사의 방북 (1994~1999).....	72
<표 11>: 북한 인사의 베트남 방문(1994~1999).....	73
<표 12>: 베트남의 대북 수입 및 수출 현황(1994~1999).....	73
<표 13>: 베트남 인사의 방북 (2000~2011).....	79
<표 14>: 북한 인사의 베트남 방문(2000~2011).....	79
<표 15> 베트남 정부의 대북 쌀 원조 현황(2000~2010).....	80
<표 16>: 베트남 인사의 방북 (2012~2019).....	84
<표 17>: 북한 인사의 베트남 방문(2012~2019).....	84
<표 18>: 베트남의 대북 수입 및 수출 현황(2012~2019).....	84

# I. 서론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최근에 들어 북한은 여러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개혁개방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자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다시 끌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 실시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분단 이후 70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고, 전세계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눈여겨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공동 선언을 통해서 65년간 이어져왔던 휴전 중인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재구축하기로 남북이 의사를 표명하였다. 김정은은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일간의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고, 이후에 베트남 정부를 방문하여 회의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한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는 호의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북한과의 역사적인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이다. 따라서 중국과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 중에 어느 모델이 보다 적합한가, 북한이 결국 어떤 모델을 채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화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통해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재확인한 북한의 태도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베트남의 경제 모델은 북한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과거에 1975년 이후부터 여러 요인으로 인해 관심을 끄는 이슈가 아니었다. 1975년 이후 양국 관계는 베트남 전쟁 시기 및 1950년대부터 혈맹으로 맺어진 시기에 비해 많이 소원해졌다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1975년 이전인 1960년대말부터 북.베 관계는 중국이라는

변수에 의해 관계가 이미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1973년부터 북한의 베트남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무력통일 의도가 없다고 1972년부터 선포하였다. 즉 1960년대말,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통일정책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불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975년이라는 시점은 베트남이 통일을 이룩한 시점이기 때문에 늘 베트남의 통일 방식에 고무되어 있었던 북한과 베트남 간에 1975년 베트남의 통일이 확정된 이후 통일 방식에 대한 양국의 공통점이 본격적으로 깨어지고 양국 관계를 되살려주는 요인이 하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75년이라는 시점을 양국 관계에 전환점으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양국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1975년 이후 양국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태이다. 특히 북한은 베트남의 개혁을 언급하자 양국 관계에 대한 여론이 다시 살아났으며 이 시기의 양국 관계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도 대두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 북한 베트남 특명전권대사인 쩡응찐특 (Đương Chính Thức)대사는 1986년 베트남 쇄신 정책 시기 전에 양국이 비슷한 점을 많이 지녔기 때문에 베트남의 개혁 개방 모델이 북한에 적합하며, 싱가포르의 개혁개방 모델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이외에도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북한에 적합하다는 한국 여론과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 중국식 개혁개방이 더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주장들도 나왔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을 떠나서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가 주목되고 있고, 이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의 선행연구검토 부분에서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

<sup>1</sup> Việt Anh. Cựu đại sứ tại Triều Tiên: “Việt Nam là hình mẫu hợp lý cho Kim Jong-un” (주북한 베트남 전대사: '베트남은 김정은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다'). <https://vnexpress.net/the-gioi/cuu-dai-su-tai-trieu-tien-viet-nam-la-hinh-mau-hop-ly-cho-kim-jong-un-3769647.html>. (검색일:2018년 06월 29일)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로서 베트남 언론에서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 ‘조선반도’, ‘남북관계’, ‘북한의 핵문제’, ‘남북통일’이라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1986년부터 이러한 경향이 보였다. 쉐신 정책이 마련되었다가 1996년 8월에 개최된 제 8회 당대회에서 예전처럼 소련, 중국, 북한, 쿠바, 캄보디아, 라오스 등 사회주의국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 ‘국제사회와 최대한의 속도로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청책들을 모든 국가에게 펼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2년에 북한의 적인 한국과 수교하는 것만 봐도 이러한 양국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베트남은 북한을 북한 자체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한반도 평화’, ‘한국과의 통일’, ‘한국과의 관계’라는 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점차 생기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라도 베트남측에서는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를 한반도와 한국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현재로서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한반도라는 관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트남은 북한과는 공산주의국가 연대의식이라는 틀에서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북한과 베트남도 보편적인 국가들간의 관계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로서는 북한측에서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 베트남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 베트남식 개혁개방이 주목되고 있다. 반면에 1950년대와 1960년대 즉 양국 관계가 한창 좋았다는 시기에는 ‘연대의식’, ‘반미공동의식’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양국 관계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한과 베트남(북베트남)은 1950년부터 혈맹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외교 관계는 반제국주의 의식, 사회주의 연대의식, 반미 공동의식 등 연대의식<sup>2</sup>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베트남 전쟁 때 전투병 과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체적으로 1964년부터 1969년까지 무기, 군복, 설비 등의 물자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원조, 공병부대와 공군부대 파견, 심리전 전문가 파견, 갱도건설과 하노이 영공권 사수에 나섰다. 1965년 베트남 전쟁 시기에 북한정부는 북베트남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4백만 루블을 더 지원했다. 북한이 당시 베트남 전쟁에 지원한 원조 금액 (탄약, 무기 등)은 북한 기록에 따르면 북한돈으로 1억 7천 5백만원이다. 1966년의 군복 지원 이외에도 당시 북한과 북베트남간에는 문화교류, 경제 협력 등 여러 활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의식을 점차 공고히 하였다.

이렇게 혁명적이고 동지적인 관계를 맺었던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는 1975년 즉 베트남이 통일을 이룩한 시점부터 굴곡을 겪었다. 양국은 과거 혈맹 관계로 맺어졌지만 1990년대 한국과의 수교, 중월 전쟁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등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졌다. 1978년 12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북한은 “무력침공은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든가 1992년에 베트남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두 나라의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특히 베트남은 1986년 쇄신 정책으로 통일 이후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였고 이때부터 갈 길이 갈렸다. 1992년에 들어 베트남은 북한과 적대관계였던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

<sup>2</sup> 도미엔. 2019. 「베트남 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pp.34-47



1995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자 우호관계도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굴곡들을 거쳐서 2010년에 들어서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베트남과 북한은 양국 사이에 체결되었던 협정들을 재정의하고 이의 효력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진행했다.<sup>3</sup>

기존 연구들은 주로 북한과 북베트남의 혈맹 시기(1950년대~1975년)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과 북베트남의 외교관계의 전개와 특징을 밝혔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북한과 북베트남의 외교 관계의 굴곡의 시기 즉 1975년 이후에 두 나라의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음과 동시에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가 관심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가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더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그 동안 연구 주제로 활발하게 제시되지 않은 1975년 이후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를 두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베트남의 외교 정책과 북한의 외교 정책은 베트남 통일 시점인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특히 베트남의 대공산주의국가 정책, 그리고 북한의 대공산주의국가 정책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둘째 1975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 관계는 혈맹 시기에

---

<sup>3</sup> Nghị định thư giữa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về rà soát tình trạng hiệu lực của các điều ước và thỏa thuận quốc tế giai đoạn 1950-2007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부 간 1950-2007 년 기간 국제 협약 상태 및 이의 효력에 대한 검토)

비해서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구체적으로 연대의식과 기타 협력들은 1950년대~1970년대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현재로서 양국의 외교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양국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존재했는가? 이를 풀기 위해서 각 시기에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관계가 어떤 특징이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즉 이러한 양국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가? 어떤 때는 양국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어떤 때는 협력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상황 변화에 작동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중국, 미국, 한국 등 외부적 요인인 세계의 정세 또는 양국이 가고자 하는 진로 등과 같은 내부 요인에 대해 깊이 들여다 보고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양국 관계의 전망에 대한 문제이다. 미래에 양국이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발전하겠는가를 두고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도 제기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북한과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계기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북한은 어떤 측면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관계를 유지해왔는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질문에 의해서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과 북한의 대공산주의국가 정책들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서로간의 외교 태도를 살펴보는 데 그 첫 목적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두번째 목적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시기에 따라 북.베 관계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베트남과 북한 관계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즉 양국의 상호 방문, 양국의 협력 등을 포함해서 외교 관계의 다각적인 측면을 총괄하여 1975년 이후

북.베 관계의 전개과정에 나타나는 지속과 변화를 규명하고 그 성격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그 함의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각 시기 베트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는데 또 다른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이 가기로 한 진로, 외교 정책, 정부의 형태에서 생겨난 두 나라의 연대의식 그리고 본국의 상황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인 당시 국제 정세에 의해서 분석들을 나열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베트남은 서로간 바라보는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즉 양국의 관계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겠다.

##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에서 북한의 외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는 북한의 대동남아국가 외교 정책에 속하기 때문에 북한의 대동남아국가 외교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대동남아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의 대동남아 외교 정책의 변화는 주로 다루어지는 연구 주제이다. 박성관의 ‘북한의 대동남아 정책 : 패턴과 변화’ 라는 연구에서 정통성 확보와 국제혁명역량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이라는 북한의 대동남아 정책의 패턴, 더 나아가 1999년 - 2000년에 북한의 대동남아 정책의 변화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한국에서 북한의 대베트남 정책과 관련된 주제는 주로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가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인 베트남 전쟁에 중점을 두어

연구되었다. 이신재의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윤대영의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 연구 등이 있다. 또 도미엔의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에서 베트남 전쟁 시기의 북한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이 연구의 “1975년 베트남 전쟁 종결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이라는 부분에서 1975년 베트남의 통일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반응을 통해서 양국 외교 관계를 어느 정도 분석하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보태서 1975년~1979년 시기 양국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한편 베트남의 개혁 개방 문제가 북한의 경우에서 보여주는 시사점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북한』 등이 있다.

베트남에서 북한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 관한 연구는 아주 드물고 주로 다루는 주제는 크게 국제 환경속에서 북한의 핵문제 및 통일 문제를 다룬 북한의 국제 관계 및 대외 정책, 베트남 통일 시기 이전의 북한의 경제 성과 및 노하우, 북한 인민의 영웅적인 전쟁, 현대시대의 베트남과 북한 관계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북한의 국제 관계 및 대외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Lê Đình Năm (레딘남)의 연구인 “Vấn đề Triều Tiên trong quan hệ quốc tế từ năm 1945 đến nay” (1945년부터 국제관계에서 북조선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 2차 세계 대전 및 냉전 시기 이후 (1945~1989) 그리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환경속에서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 특히 핵문제와 남북 통일을 다루었다.

둘째, 베트남 통일 시기 이전의 북한의 경제 성과 및 노하우는 “Nông

thôn Triều Tiên trên đường hợp tác hoá” (조선의 농업합작화), “Một số kinh nghiệm giáo dục của Cộng hoà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육경험), “Lao động Triều Tiên đề cao tinh thần tự lực cánh sinh” (조선의 자력갱생 정신 강조)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베트남 통일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노하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베트남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셋째, 북한 인민의 영웅적인 전쟁 주제는 주로 북한의 전쟁사와 이 전쟁의 교훈 등이다. 대표적으로 “Lịch sử cuộc chiến tranh chính nghĩa giải phóng tổ quốc của ND TT”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연구는 1975년 즉 베트남 통일 이후의 시기에 “Vietnam-North Korea Relations: Some Remarks over the Last 65 Years and Prospects” (베트남-북한 관계: 65년간의 고찰과 전망) 밖에 없으며 이 연구에서는 주로 베트남의 온라인 신문에 의해서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외에는 1975년 이후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 정책에 대한 연구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외에도 영어로 작성된 대표적인 연구는 Do Dieu Khue의 “Was the “China Factor” Working? U.S. Policies Towards Vietnam,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Late 1970s”이다. 이 연구에 1970년대말 중국팩터는 미국 포드와 카터의 행정부의 정책에 작동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중월 전쟁 시기 북한-베트남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나머지 연구들은 대부분 Le Thu Huong의 “Vietnam-North Korea: Communism Could not Unite Them, Can Capitalism?”, Steven Saxonberg의 “Transitions and non-transitions from communism: regime survival in China, Cuba, North Korea and Vietnam”에서 나타나는 관심사와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개방 및 자본주의화 동향에 대한

시각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북한과 베트남의 외교관계는 주로 베트남 전쟁 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기에는 양국의 외교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 따라 연구도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1975년 이후 시기에 대한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1975년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양국관계의 특징 및 진화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시기 베트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자료

본 논문은 1975년 이후부터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국제정치의 외교학 시각의 맥락에서 이 연구가 다루는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로즈노 (James N. Rosenau)의 연계이론 (Linkage theory) 에 따르면 국제정치 외교학 시각에 있어서 외교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국에게 추진하는 대외정책이다. 로즈노는 한 국가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서 ①국가의 외부환경, ②국가의 사회적 환경, ③정부형태, ④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자리에 따른 역할, ⑤외교정책결정 엘리트 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베트남 관계도 이러한 5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베트남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형태, 정책 결정자 등과 같은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체제, 주변국들의 정책방향 등과 같은 외적 환경이 북한과 베트남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즉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관관계 속에서 외교정책은 수립되고 결정되며 집행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베트남 관계에 대해 조망하여 시기별로 어떤 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맥락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베트남의 경우를 분류하여 각국의 내외적 요인을 살펴보겠다.

북한의 경우, 북한의 내부에서 50년대 이전부터 북한이 공산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므로 반제국주의가 시작되었으며 50년대 중반에 반미의식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서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거둔 국가들의 사례를 삼아 국가 제도를 보다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의식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치체제와 정책결정자인 노동당 속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로 반제국주의라는 공산국가들의 연대의식, 그리고 두번째로 북한의 내부 상황을 내부적 요인으로 간주한다. 내부 상황은 구체적으로 북한 내부 권력 강화 의도,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전개된 북한의 남방외교정책, 북한과 아세안 관계 개선 의사, 북핵 개발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통일은 반식민지.반제국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반외세 민족주의운동을 통하여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반제국주의도 베트남의 내부적 요인인 정치체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베트남의 첫번째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베트남과 북한의 공통점인 이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외교관계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두번째 내부적 요인은 베트남의 내부 상황인

개혁개방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나라의 외교 정책이다.

내부적 요인과 함께 외부적 요인은 국제체제, 주변국들의 정책방향 등으로 간주 가능하다. 본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시간의 틀은 197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이 시간동안 어떤 국제 환경속에서 양국관계가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과 베트남은 냉전시기에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외교정책을 수립하였으나 탈냉전시대로 진입하면서 국제 환경으로부터 다소 자율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중국, 미국, 소련(1991년 이후 러시아) 등과 같은 강대국 변수는 양국 관계 전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들이다. 북한은 소련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해체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생겨났다. 그리고 중소 갈등 심화가 정책 방향 조절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국제정치의 배경에서 1986년 쇄신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 갈등 속에서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사회주의 붕괴의 분위기 속에서도 정책 변화를 많이 이루었다. 본 논문을 양국 관계의 성격을 밝히는 과정에 이러한 외적 국제 정세에 대해 하나씩 조명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양국의 궁극적인 원동력 즉 어떤 이해관계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대외정책을 펼쳤는지 알아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다.

이러한 이론들을 활용하여 연구의 범위와 위치를 확정하자면 본 논문은 197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베트남 관계라는 주제로 거시적인 국제정치의 외교학 시각에서 양국 관계 변화들에 작동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북한-베트남 관계가 어떠한 특징이나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다시 말해서 본 논문은 이 이론적인 틀을 활용하여 양국 관계 변화를 초래하는 내외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양국의 진정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논문의 끝을 맺고자 한다.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자가 양국 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때 4가지 시기로 나누었는데 각 시기에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는 정도가 상이하여 시기 별로 어떤 요인이 양국 관계에 보다 큰 역할을 하는지 고찰할 것임과 동시에 국제관계 이론에 따라서 양국관계의 진정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도 살펴보면서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7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5년동안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는데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역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1차 자료, 2차 자료들을 이용하여 국제관계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겠다.

북한측의 1차자료는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을 참고한다. 로동신문은 북한을 대표하는 일간 신문으로 북한 정부의 공식 기관지이다. 현재 로동신문이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한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필자가 1975년부터 2019까지 베트남과 관련된 이슈들을 조회하였는데 이 신문은 양국의 관계와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조선중앙년감은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발행하는 연감인데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 해 동안 있었던 북한 국내외 사건 등을 기록한 책이라 베트남을 포함한 북한과 수교가 맺어진 국가들과 외교관계에 대해 기록하기도 한다. 이 자료를 1975년부터 2018년까지 조회하였으므로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한 총괄이 가능한 자료로 생각한다.

그리고 베트남측 1차 자료는 베트남 외교부에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공개한 양국 방문 공문, 체결, 외교관계자들의 평가들이 있다. 이외에도 베트남 *Nhân dân* (인민) 신문 등을 1차 자료로 들 수 있다. 인민 신문은 베트남 공산당의 보도, 선전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정부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신문이다. 이 신문은 현재 베트남 호찌민 종합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한데 *hard copy*가 2009년까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1975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 외교부에서 공개한 북한의 외교관계, 주로 1976년~1981년의 북한의 각 국가 방문 기록도 참고 자료로 간주된다. 특히 북한외교 관련 동구권 외교 문서 자료를 종합하는 기관인 *Wilson center*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베트남과 북한 관계의 특징을 연구한다. *Wilson center*에서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 관련 데이터들을 조사하여 통계해봤는데 주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양국 관계에 대한 내용이 조희가 가능하다.

2차 자료는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로 되어 있는 북한과 관련된 책, 연구, 논문, 신문 (경향 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을 통해서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보도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베트남어 자료는 선행연구 고찰 부분에서 서술한 베트남의 공산주의국가 정책과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 책, 논문 등을 활용해서 관점들을 살펴겠다. 그리고 베트남 정통 온라인 신문들도 양국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한국어 자료는 한국 신문을 활용하겠지만 2000년 이전의 것은 각 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조희가 가능한 온라인 신문이 없으므로 네이버라이브러리에서만 1975~1999년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이 4가지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당시 베트남과 북한 간에 어떤 팩트가

일어났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영어 자료는 논문, 책들을 포함시켜서 연구하고자 한다. 양국간의 무역은 한국 KOTRA, IMF에서 통계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북한과 베트남의 대공산주의 국가 외교정책

### 1. 베트남의 대공산주의국가 외교 정책

베트남-북한 관계는 1975년~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베트남의 대공산주의국가 특히 강대국인 소련, 중국, 등의 외교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1975년~2019년 기간의 베트남-북한 관계는 우선 베트남의 대공산주의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양국관계에 있어 미국, 한국 등과 같은 국가들과 외교관계에 의해서 변화가 생겼으므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본 논문은 양국관계 특징을 전개하면서 ‘베트남과 북한 외교 관계’ 부분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우선 대소련 외교관계를 보면 베트남 공산당 창립 년도인 1930년<sup>4</sup>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친소 경향이 강한 나라이다. 중소분쟁에서도 대놓고 소련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서 소련은 베트남의 공산주의 형성 시절부터 베트남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북한과 관계를 연구할 때 소련이라는 요인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소련과 베트남은 1950년 01월 30일에 외교 관계를 설립하였고, 1955년 06월 18일에 베트남-소련 경제 및 무역 협력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소련과 경제협력 관계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항미전쟁’에서 베트남과 전면적인 협력에 힘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소련은 베트남의 1955~1957년의

---

<sup>4</sup> “Đề cương tuyên truyền 90 năm ngày thành lập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Ban Tuyên giáo Trung ương Việt Nam. 2019 ( ‘베트남 공산당 창설 기념 90 주년 선전개요’ . 베트남 중앙선전부. 2019)

3년 경제 회복 계획과 1958~1960년의 경제 및 문화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 데 지원해 주었다. 1955년 7월 18일에 체결 된 협정에 따라 소련은 베트남에 4천만 루블을 제공하여 기계, 석탄 및 전기 산업분야에서 146개의 산업 건설 관련 기업과 기관을 건설하고 복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59년 3월에 소련은 베트남에게 1억 루블을 대출해주어 위에 언급한 3년간의 경제 개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60년 6월 14일에 체결 된 계약에 따르면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소련은 베트남으로 1,547명의 산업 전문가를 파견했으며, 420명의 연수생과 1,267명의 베트남 학생들이 소련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sup>5</sup>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서 1964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베트남-소련 관계는 새로운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베트남 혁명의 노선에 있어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베트남은 "전국민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북부의 사회주의 혁명을 촉진하며, 남부에서 민족혁명을 촉진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단호히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련이 원하는 국가 통일 방침과 달라서 양국 관계가 느슨해졌다. 소련은 당시 체네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남베트남의 현상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남베트남의 정치적 투쟁을 장려하고 협상과 평화를 통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남부에서 무장 투쟁과 정치적 투쟁을 거의 언급하지 않기도 했다. 남 베트남에서 국가 민주주의 혁명을 추진하는 임무에 관해서 소련의 태도는 부정적인 징후를 나타냈다. 소련은 과거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이 남 베트남에서 무장 투쟁을

---

<sup>5</sup> Nguyễn Thị Hồng Vân. 2010. *Quan hệ Việt Nam-Liên Xô (1917-1991) Những sự kiện lịch sử*. Hà Nội: Viện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pp. 110-170 (Nguyễn Thị Hồng Vân. 2010. 『베트남-소련관계 (1917-1991) - 역사사건』. 하노이:베트남 과학 사회원. pp.110-170)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베트남만이 그들의 노력에 집중하기를 원했다. 그 결과 1960년대부터 소련은 베트남 남쪽에서 군사 투쟁을 위한 무기 제공을 줄이기 시작하였다. 1962년 9월 반 티엔 등(Van Tien Dung) 대통령이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원했을 때 소련은 아주 적은 지원만을 허용하였다. 1963년 1월 28일, 하노이에 있는 Tovmasyan 소련 대사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파견에 의해 Pham Van Dong 총리와 만나서 남베트남에 대한 경제 원조만을 강조했다.

게다가 이시기에 중-소 갈등과 중국 요인이 중-소 관계의 발전에 주요 장애물이 되었다. 소련은 미국과 중국과의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및 인도와 같은 지역의 다른 주요 국가들을 포섭하는데 보다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과 협상에서 베트남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알바니아와 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양국 관계의 역사상 가장 소원한 시기이다.<sup>6</sup>

그렇지만 소련 원조는 1965년에서 1968년 기간동안 증가한 추세가 보였다. 1967년까지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의 총 원조는 약 15억 루블(15억 달러 이상)이며 소련 지원은 36.8% (US \$ 608 million)를 차지했다. 이 시기에 베트남에 대한 소련 정책 조정의 원인과 관련하여, 주로 미국 제국주의가 소련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은 흐루시예프 하에서 외교의 올바르지 않은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베트남을 국제

---

<sup>6</sup> 2010. “Quan hệ Việt Nam-Liên Xô trong giai đoạn kháng chiến chống Mĩ (1954-1975)”. Trường đại học sư phạm thành phố HCM, Khoa Lịch sử. (베트남의 반미 전쟁 시기 베트남-소련 관계(1954-1975). 사학과, 호찌민 사범 대학교) <http://www.hcmup.edu.vn> (검색일: 2010년 12월 15일).

정치의 중심으로 간주하여 소련의 주요 경쟁자인 미국과 중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베트남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sup>7</sup>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베트남과 소련의 관계는 느슨해졌다가 다시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1991년에 베트남-소련 경제 협력에서 무역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기술, 과학, 교육 분야의 협력이 침체되었다가 현재 베트남과 러시아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협력 잠재력에 비해서 협력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 양국 협력의 문제이다.<sup>8</sup>

또한 베트남의 대공산주의국가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당시 중화인민 공화국은 세계에서 베트남민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최초의 국가이다. 1950년 1월 18일부터 베트남과 수교하였고, 소련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 프랑스 반식민 투쟁 시기에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이가 개선되기도 하였으며 베트남에게 상당한 양의 무기를 지원해주었고, 전문가들도 파견하였다. 많은 북베트남군 지휘관들이 중국에서 훈련을 받았고,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 군사고문단이 북베트남을 도와 비공식적으로 참전하기도 하였다.<sup>9</sup>

---

<sup>7</sup> 위의 자료

<sup>8</sup> Võ Đại Lộc, Lê Bộ Lĩnh. 2005. *Quan hệ Việt-Nga trong bối cảnh quốc tế mới*. Hà Nội: Viện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pp.154-192 (Võ Đại Lộc, Lê Bộ Lĩnh. 2005. 『새로운 국제적 맥락에서 베트남-러시아 관계』. 하노이: 베트남 사회 과학원. pp.154-192).

<sup>9</sup> Hà Trinh. “Viện trợ của Liên Xô và Trung Quốc trong kháng chiến chống Pháp”. Trang thông tin điện tử Bảo tàng chiến thắng lịch sử Điện Biên Phủ (Hà Trinh. ‘항불전쟁 시기 소련과 중국의 원조’ . 디엔비엔푸 승리 박물관 홈페이지)

<http://btctlsdienbienphu.svhttdienbien.gov.vn/Article/251/Vien-tro-cua-Lien-Xo-va-Trung-Quoc-trong-khang-chien-chong-Phap.html>

그러나 중소 갈등이 고조된 시기 ‘대미항전’을 벌이고 있었던 베트남은 항상 중국 영향을 받는 국가였지만, 소련의 정치 사상에서 다소 열어진체 지리적으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서 중소 갈등 속에서 전략적 동맹국 건설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도전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요인도 이 시기에는 베트남과 소련의 관계 발전에 큰 장애로 작동했다. 1975년에 베트남이 통일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1978년에 베트남은 캄란(Cam Ranh) 군항에서 소련 해군의 기지를 설정할 수 있게끔 소련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이 친중노선을 걸던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중국이 발끈하여 1979년에는 중월전쟁까지 벌어졌다<sup>10</sup>. 이 사건 이후 양국의 관계가 199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상화되고 개선되었으나 양국 사이는 동해에 대한 주권 분쟁에 의해 여러모로 복잡하며 난해한 문제를 안고 있다.<sup>11</sup>

이 외에 캄보디아도 베트남과 북한 관계에서 살펴볼 만한 공산주의국가이다. 1967년 6월 24일 양국은 외교 관계를 맺었다. 1954년에서 1970년까지 시아누크 정부는 긍정적인 중립 평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점차 베트남 혁명 세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sup>10</sup> Nguyễn Ngọc Dung. 2013 . *Vấn đề đồng minh chiến lược của Việt Nam - một cái nhìn lịch sử*. Hồ Chí Minh: 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ĐHQG-HCM.(Nguyễn Ngọc Dung. 2013 . 『베트남의 전략적 동맹국 문제-역사적 관점』 . 호찌민: 호찌민 국립 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교 .

<sup>11</sup> Phạm Phúc Vĩnh. 2016. *Quan hệ Việt Nam-Trung Quốc (1986-2006)*. Hồ Chí Minh: Đại học Quốc gia TP.HCM. pp.25-96 (Phạm Phúc Vĩnh. 2016. 『베트남-중국 관계(1986-2006)』 .호찌민: 호찌민 국립대학교 . pp.25-96)



베트남의 대미투쟁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이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캄보디아에 군대를 파견하자<sup>12</sup> 베트남과 캄보디아 정부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1991년 이후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1998년에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하자 그 이후 2015년까지 베트남은 캄보디아의 제3번째 무역 대상국이 되었다.<sup>13</sup>

전체적으로 보면 베트남의 대공산주의국가 외교 흐름은 베트남 프랑스 반식민 투쟁 시기, 대미항쟁 시기, 통일 이후 시기, 냉전 완화 시기로 구분하여 파악이 가능하다.<sup>14</sup>

첫째, 베트남 프랑스 반식민 투쟁 시기에는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 강대국과 협력을 강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지지도 되도록 활용하였다.

둘째, 대미항쟁 시기에는 인도차이나의 지지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의 도움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소 갈등에 의해서 이 양국 간에 관계를 조절하는 데 여러 도전을 맞이하였다.

셋째, 통일 이후 시기인데 소련과 기타 사회주의국가와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중국과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었다. 캄보디아 정부와도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

---

<sup>12</sup> “Thông Tin Cơ Bản Về Căm-pu-chia Và Quan Hệ Với Việt Nam”, Bộ Ngoại giao Việt Nam. <http://www.mofahcm.gov.vn> (베트남 외교부, 캄보디아와 베트남과의 관계에 관한 기본 정보)

<sup>13</sup> Hà Minh Hồng, Lưu Văn Quyết, Phan Văn Cà, Lê Mậu Thành, Nguyễn Thế Trung. 2018 . *Việt Nam-Campuchia- 50 năm quan hệ hữu nghị, hợp tác (1967-2017)*. Hồ Chí Minh: Nhà xuất bản tổng hợp. pp. 43-70, 145-197 (Hà Minh Hồng 외. 2018. 『베트남-캄보디아-50 년 간의 우정과 협력 (1967-2017)』 . 호찌민: 종합출판사. pp. 43-70, 145-197).

<sup>14</sup> Lưu Văn Lợi. 2015. *Ngoại giao Việt Nam (1945-2000)*.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Sự thật(Lưu Văn Lợi. 2015. 『베트남 외교 (1945-2000)』 . 하노이: 진실 국가 정치 출판사)

뿐만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와도 관계를 넓히는 시도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냉전 완화 시기는 ‘개방을 위한 시기’ 라고 부를 정도로 개방 노선을 지원해주는 외교 정책들이 펼쳐졌으므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라든가, 국제 화합 추구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 여러 개혁개방 정책을 시도하였다. 1986년 쇄신 정책이 마련되었다가 1996년 8월에 개최된 제 8회 당대회에서 예전처럼 소련, 중국, 북한, 쿠바, 캄보디아, 라오스 등 사회주의국가 뿐만아니라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sup>15</sup>, ‘국제사회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청책들을 모든 국가에게 펼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베트남은 북한과 공산주의국가, 연대의식이라는 틀에서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북한과 베트남도 보편적인 국가들간의 관계로 즉, 실리외교 관계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눈 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1992년에 북한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수교하는 것만 봐도 이러한 양국 관계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베트남은 북한을 북한 자체로 국한시키지 않고 ‘한반도 평화’, ‘한국과의 통일’, ‘한국과의 관계’ 라는 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점차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연구할 때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를 초래시키는 요인들을 파악하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북한의 대공산주의 국가 외교정책

---

<sup>15</sup> Luu Văn Lợi. 2015. *Ngoại giao Việt Nam (1945-2000)*.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Sự thật (Luu Văn Lợi. 2015. 『베트남 외교 (1945-2000)』. 하노이: 진실 국가 정치 출판사)

북한도 베트남처럼 같은 공산주의국가인 소련과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므로 이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우선 북한과 소련의 관계를 보면 북한정권은 소련의 위성국가 정책에 의해 탄생한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한국 전쟁 시기, 1949~1953년도에 소련은 북한에게 군사원조를 하였다. 원조의 품목은 전차, 장갑차, 전투기, 미사일 등 다양한 군사 장비였다. 1948년, 북한과 러시아는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한국 전쟁 시기를 거친 후 우방국으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스탈린 사망 후, 1956년 니키타 흐루쇼프가 집권하고 북한이 흐루쇼프를 ‘수정주의자’ 라고 비판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특히 중소 분쟁이 고조된 시기(1954-1961)는 북한이 나아가고자 하는 노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시기였다. 이 시기의 대외적 요인은 북한이 주체노선과 주체사상을 대두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북한과 연대의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사회주의 국가의 두 강대국인 중국과 소련 간에는 격렬한 분쟁이 벌어졌다. 북한은 이 분쟁에 대해 1950년대 말까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1960년대 들어서면서 분명하게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북한의 입장은 베트남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이어졌던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에 대해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 관계’ 부분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1964년에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집권하면서 양국은 각종 경제기술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개선시켰다. 그리고 1990년에는 한-러 정상회담이 열렸고 같은 해에 맺어진 한국-소련 수교는 북한과 소련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후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양국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협력과

미사일 문제 등을 공동 선언에 포함시켰다.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양국 관계가 매우 좋아졌으나 2013, 2014년 북한의 3차 및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다시 소원해졌다. 이후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고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흐름을 살펴본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49년 10월 6일에 중국과 북한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북한의 성립 과정에는 소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은 중국과 혈맹 관계를 맺었다. 한국전쟁 시기에 중국군이 참전하기도 했으며 전쟁 이후 동맹조약을 맺기도 했다. 북한과 중국 관계는 중소 분쟁이 고조된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북.러관계보다 더욱 밀접해졌다는 사실을 미국 CIA 기밀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인민지원군의 활동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가장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전쟁 시기도 그렇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1958년까지 주둔하면서 건물 복구공사에 참여하거나 북한 주민들에게 군량미를 제공하고, 농사 짓는 일도 도와주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동유럽과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며 1992년에 대한민국과 수교하자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일 수 밖에 없었다. 특수한 혈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 어느 정도 보편적 국가간의 관계가 함께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북한과 중국은 예전보다는 관계가 소원해졌고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서면서 양국관계에 성쇠고락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지했으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 중국 간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북한에 강한 압력을 가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유지를 더욱 희망하는 방향에서 양자관계의 흐름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 단계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행한 시기인데 이 시기 이후 북중관계가 나빠진 상태로 지속되자, 이에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 시기 양국은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 단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기인데, 북한과 중국 양국은 서로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우호적인 양국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캄보디아와 북한의 관계는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다. 캄보디아는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노로돔 시아누크 왕자와 후임 대장 김일성장군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것처럼 현재 양국관계가 명목상 최소한의 거래 및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캄보디아-북한 관계는 양국의 국가적 이익이나 지리적, 문화적 또는 무역적 연계가 아닌 캄보디아의 노로돔 시아누크와 북한의 김일성 및 김정일과 같은 양국 전 지도자들의 강한 인맥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1964년 시아누크 국왕은 북한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서울 정부와 관계를 끊고 평양과 외교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시아누크 국왕의 결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에 의해 무시 당했던 김일성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캄보디아와 북한의 관계는 과거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여전히 이

고립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국과의 외교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극적으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두 지도자의 연결성이 매우 낮아지면서 캄보디아와 북한의 관계는 명목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북한의 대공산주의국가 외교 관계는 크게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는 양상과 함께 마스레닌주의에서 탈출하는 양상을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은 다음에 개인숭배사상을 설정하였으며, 소련의 마스레닌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친중 노선을 택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1966년부터 1971년까지 조중 친선을 중단시키면서 조-중 관계가 약화되었다. 이때 소련과도 외교 관계는 그리 개선되지 않았다.

셋째, 1970년대에 들어서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시켰으나 예전보다 신중한 친중 노선을 택하였다. 1972년 북한의 헌법에서 아직 마스레닌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의 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하겠다고 하였으므로 1970년대 북한은 진영외교에서 벗어나 중립국과 제3세계권에 대한 실리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보였다. 넷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스레니 주의보다 주체사상 원칙이 먼저 제기되었다. 한편, 중국의 등소평이 취임하면서부터 중국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1980년대 친중보다 친소 정책으로 외교 정책을 변경하였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III. 베트남과 북한 외교 관계

본 논문은 위에서 서술했듯 내외적 요인들을 시기별로 조망함으로써 북한과 베트남 관계 변화와 발전 과정을 통괄하며 각 시기에 양국 관계의 면모를 파악할 것이다. 따라서 내부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외부 요인이 주축으로 작동하는 시기도 있는 것이다. 이를 시기별로 양국 관계를 분석하며 각각 밝히려고 한다. 북한과 베트남 관계는 70년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과 북한은 서로를 ‘형제’, ‘혈맹’으로 칭하면서 긴밀한 관계 속에서 1950년 1월 31일에 수교했다. 그렇지만 양국 관계는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특히 베트남이 통일한 이후 순탄치 않은 과정을 많이 겪었다. 국내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양국 관계는 등락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웠다가 지금처럼 전통적 관계를 재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외적 적지 않은 변수로 인해 양국 관계는 혈맹처럼 지냈다가 소원해졌다가를 여러 번 반복했다. 수교했을 때부터 혈맹처럼 관계를 맺었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양국 사이에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양국 외교사가 한결같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양국 관계를 크게 다섯 시기별로 나눠 양국 관계의 성격과 작동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 1. 1975년~1978년대: 혈맹에서 전통적인 관계 유지 수준으로 전략

선행 연구 부분에서 전술했듯 기존 연구<sup>16</sup>는 베트남 통일이 북한에 미친 영향을 통해서 베트남과 북한의 당시 관계를 어느 정도 밝혔으나 이 시기 양국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시기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 결과를 보완하여 1975년~1978년의 시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보다 개괄적인 시각을 제공하겠다. 1950년대 베트남과 북한 관계는 반제국주의 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음과 동시에 중국을 교두보로 한 사회주의 연대의식에서 사회주의 진영외교의 양상을 띠었다. 게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이 제네바 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베트남과 북한의 반제국주의의 공동의식이 반미의식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서술하였다.<sup>17</sup> 1960년에 들어서면서 베트남 전쟁이 확산되고 북한과 북베트남은 더욱 더 연대성을 확보하며 친선 관계를 발전시켰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기록한 문서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북한은 베트남에 무상원조와 전쟁자금을 지원하였다. 북한의 무상원조는 196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1천 2백만 루블이었다. 그리고 1965년부터 1969년까지 원조 금액은 3천만 루블을 넘었다. 이외에도 북한이 북베트남과 체결한 경제 협정에서 보듯 반미 투쟁을 위한 이유로

---

<sup>16</sup> 도미엔, 2019. 「베트남 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sup>17</sup> 도미엔, 2019. 「베트남 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pp.34-47



설비, 물자, 기술 원조, 그리고 그 이후 공군 파견, 심리전 전문가 파견 등과 같은 지원을 아낌없이 실시하였다고 밝혔다.<sup>18</sup> 하지만 베트남 전쟁 시대 북한이 지원한 물품 및 병력과 관련해서 베트남은 이를 부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960년대말부터 북한과 베트남의 공동 반미전선에 대한 견해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하였음<sup>19</sup>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양국이 연대의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 관계가 눈에 띄게 소원해졌으며 특히 북한의 대베트남 경제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sup>20</sup>. 하지만 아무리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1979년에 들어설 때까지 양국 관계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베트남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기에 베트남과 북한 사이에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고찰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먼저 내부적 요인 즉 양국 정치 체제에서 생겨난 연대의식과 북한 내부 상황 즉 베트남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계기로 북한의 권력 강화 의지 등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1975년에 들어서면서 베트남은 통일이 되고 사회주의 건설의 일정한 성과들을 얻었으므로 북한은 베트남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통해서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양국 관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관계인 연대의식과 북한 내 권력 강화 의도라는 이해 관계에서 이 시기의 양국관계를 평가할 수 있다. 외부적 요소는 당시 베트남

---

<sup>18</sup> 위의 논문. pp.120-137

<sup>19</sup> 위의 논문. pp.141

<sup>20</sup> 위의 논문. pp.196

통일 이후 한국인들의 송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베트남 사이에 불편함이 생겼다. 따라서 이 시기에 외부적인 요인을 한국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양국 관계의 성격을 반영하여 이 시기를 ‘혈맹에서 전통적인 관계 유지 수준으로 전락’ 이라고 칭하였다.

### 1) 베트남과 북한의 상호방문 및 협력

이 시기에는 양국 경제 협력이 위에서 서술하였듯 외교 관계를 수립한 초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양국 상호 방문이 유지되었다. 먼저 북한과 베트남의 대외관계를 상호 방문 즉 인사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고찰해 본다.

<표1>: 베트남 인사의 방북 (1975~1978)

방문 기간	방문 인사
1975년	베트남과학기술협조대표단, 기자대표단, 베트남조선친선협회대표단, 정부무역대표단
1976년	탁구대표단
1977년	베트남 민용항공총국대표단, 민족음악단, 인민군대표단,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투쟁지베트남위원회대표단
1978년	베트남 정부무역대표단, 베트남 청소년배구선수단, 베트남 정부 대표단, 베트남 정부 대표단, 과학기수협조대표단

자료: 조선중앙년감 (1976, 1977, 1978년), 로동신문

베트남의 북한 방문을 시대별로 나열해 보면 1975년에 4월부터 12월까지 4회만 방문하였고 그중에 베트남 무역 대표단이 북한을 한번 방문하였다. 1976년에는 양국 사이에 인사 교류가 적어지다가 1977년과 1978년에 들어서면서 교류양이 조금 늘어나고 베트남 정부 대표단과 무역 대표단이 다시 북한을 방문하였다. 특히 베트남 정부 대표단이 북한에 1978년에 한 번

방문하여 북한 창건 30주년 기념행사에 평년처럼 참가하여 축하해주기도 하였다.

**<표2>: 북한 인사의 베트남 방문 (1975~1978)**

방문 기간	명단
1975 년	조선베트남친선협회대표단, 베트남조선친선 당 및 정부 대표단
1976 년	외교부장, 보건대표단, 중앙방송위원회, 북한인민군협주단, 북한노동당대표단
1977년	과학기술협조대표단, 정부무역대표단, 민용항공대표단, 적도기네 정부대표단
1978 년	북한 직명대표단, 북한 정부무역대표단

자료: 조선중앙년감 (1976, 1977, 1978년), 로동신문

위의 표에 의하면 1975년에 베트남을 3번 방문하였으며 그 중에 한번은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베트남민주공화국 창건 3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축하해주었다. 1976년에 들어 북한노동당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노동당 제4차대회에서 축하연설하였다. 그리고 이후 북한정부 무역대표단이 1977년과 1978년에 한번씩 방문하였던 것이 전부이다. 이 방문 기록 이외에 양국의 기타 협력 사항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할 수 있다.

**<표3>: 베트남과 북한 기타 협력 및 교류 활동 (1975~1978)**

년도	협력 내용
1975 년 12 월	남부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창건 15 주년에 즈음하여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있었다.
1975 년 11 월	김일성이 남부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원우수위원장에게 선물을 보냈다.
1975 년 09 월	민용항공협정 Civil Air Transport Agreement
1975 년 09 월	베트남민주공화창건 30 주년 평양시기념집회가 있었다.
1975 년 05 월	반미구국투쟁에서 베트남인민이 이룩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평양시군중집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1975년 05월	북한 당과 정부 간부들이 남부 베트남공화국대사관을 방문하고 남부베트남인민해방무장병력과 인민의 승리를 축하한다.
1976년 12월	김일성이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냈다.
1976년 12월	베트남노동당 제 4 차대회를 축하한다.
1976년 11월	북한인민군협주단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음악무용 종합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
1976년 08월	베트남정부 총리가 북한 대사를 만났다.
1976년 07월	김일성이 북한 주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였다.
1976년 03월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한인민투쟁지지웹남위원회 결성
1976년 07월	김일성이 북한 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였다.
1976년 09월	공화국 창건 28년에 즈음하여 베트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와 베트남북한친선협회, 베트남대외문화연락위원회의 공동주최로 9월 7일에 하노이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되었다.
1977년 09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경절 32주년 평양시기념집회가 있었다.
1977년 06월	1977년 6월 25일 하노이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한인민의 투쟁과의 연대성월간을 개막하는 집회가 진행되었다.
1977년 07월	1977년 7월 25일에는 반미공동투쟁이 끝나는 것과 관련하여 남딘시에서 군중집회가 진행되었다.
1978년 09월	김일성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
1978년 09월	김일성이 베트남의 당및국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냈다.
1978년 0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0주년에 즈음하여 북한 영화감상회와 영화상영주간이 진행되었다.

자료: 로동신문 (1975~1978)

우선 이 방문 기록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78년까지의 시기에 양국 사이에 정상급 인사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양국의 인사 교류 및 상호 방문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문화.무역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분야에 걸쳐 각종 인사 교류 및 경제 협력을 진행하려는 양국의 의사가 있어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 방문 외에도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양국의 기념식이 있을 때마다 서로 축하해주는 모습, 양국에서 진행된 영화상영이나

집회들이 정기적으로 개최된 것을 보면 베트남과 북한의 ‘변함없는’ 전통적인 관계, ‘형제국의 혈맹 관계’, 연대의식을 아직까지 견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양국 방문 기록과 인사교류는 확인되었으나 실제로 양국이 어떠한 협력을 진행하려고 하였는지 이 방문 기록과 인사교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양국 협력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보다 정확한 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1년에 체결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1950~2007년 기간 국제 협약 상태 및 이의 효력에 대한 검토’<sup>21</sup>를 살펴볼 것이다.

**<표4>: 베트남과 북한 간의 협정 (1975~1978)**

날짜	협정 이름
1975년 01월 21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베트남 유치원 설립에 관한 협약
1975년 05월 04일	베트남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과학 기술협력위원회 제 9 차 회의 의정서
1975년 0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대베트남 경제 원조 협정
1975년 10월 05일	양국 은행 간의 지불 절차에 관한 베트남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1975년 12월 19일	1976~1980년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정부와의 물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75년 12월 19일	1976년 상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베트남 정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정부 간 의정서
1976년 09월 25일	1976~1977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보건 협력 계획

<sup>21</sup> “Nghị định thư giữa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về rà soát tình trạng hiệu lực của các điều ước và thỏa thuận quốc tế giai đoạn 1950-2007”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부 간 1950~2007 년 기간 국제 협약 상태 및 이의 효력에 대한 검토)

1976년 11월 15일	1976~1977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 문화 교류 계획
1976년 11월 27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인민 소리’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디오 간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1977년 01월 14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민간 항공 운송 계약
1977년 02월 14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 기술 협력위원회 제 10 차 회의 의정서
1977년 03월 24일	1977년 상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 의정서
1977년 03월 24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우편 운영 협정
1978년 01월 24일	1978년 상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 의정서
1978년 03월 24일	1978~1979년 상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 의정서
1978년 03월 24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 협정
1978년 10월 13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과학 기술 협력위원회 제 11차 회의의 의정서
1978년 12월 12일	정보 통신 및 협력에 관한 베트남 통신사와 북한 중앙 통신사 간 계약
1978년 12월 27일	1979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물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 의정서

자료: *Ngị định thư giữa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về rà soát tình trạng hiệu lực của các điều ước và thỏa thuận quốc tế giai đoạn 1950~2007*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부 간 1950~2007 년 기간 국제 협약 상태 및 이의 효력에 대한 검토)

1975년부터 1978년 기간에 베트남과 북한은 총 19건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과학기술, 물품교환, 정보 통신, 문화, 민간 항공 운송, 보건 등 각종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19건 협정을 하였는데도 양국 관계에 대한 분위기가 그리 밝은 것이 아니었다. 북한 정부의 베트남 무상지원은 1974년부터 중단되었다고 기존 연구에서

밝혔다. 그리고 북베트남정부는 북한의 지원 감소를 당시 북베트남의 향미통일 정책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의 변화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sup>22</sup>. 따라서 북한과 베트남의 이 시기 협력은 경제 원조가 아닌 과학기술, 물품교환, 정보 통신, 문화, 민간 항공 운송, 보건 등 기타 분야에만 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물품교환 즉 무역 측면까지도 북한과 베트남 간의 교류량은 매우 적었다고 베트남 정부는 평가하였다.<sup>23</sup> 그러면 베트남과 북한 간에 어떤 이해 관계가 남았을까? 양국 관계가 혈맹이었던 시기인 1960년대에 비해 경제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다가 무역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양국은 이 시기에 고작 과학기술, 정보 통신, 문화 등과 같은 일반적인 협력 분야에 소극적인 인사 교류들만 남았다. 즉 양국 관계는 당시 1950년대 1960년대의 혈맹 수준에서 고작 전통적인 친선 ‘형제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관계 수준으로 소극적인 협력들만 견지해온 양국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 양국 관계는 소극적이나 전통적인 관계 수준으로 견지하려고 한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위와 같이 협력 측면에서 살펴보기만 하면 양국 관계가 어떤 이해 관계에서 전개되었는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음 부분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sup>22</sup> 도미엔. 2019. 「베트남 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pp.197

<sup>23</sup> 도미엔. 2014. 「1975 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pp.105

## 2) 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에서부터 정치 권력 강화로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진술했듯 본 논문은 이 시기에 연대의식과 내부 권력 강화라는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이를 이 시기의 내부적 요인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서 어떤 요인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가 전개되었는지 평가하겠다.

우선 양국 연대의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한과 북베트남은 1950년부터 혈맹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외교 관계는 반제국주의 의식, 사회주의 연대의식, 반미 공동의식 등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1965년 베트남 전쟁 시기에 북한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북베트남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4백만 루블을 더 지원했다. 이 지원 외에도 당시 북한은 북베트남과의 문화교류, 경제 협력 등 여러 활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의식을 점차 공고히 하였다. 반면에 이 시기에 북한은 1974년부터 대베트남 무상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동시에 1969년까지 양국의 통일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베트남의 통일 방식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데다 비판적인 입장이었다<sup>24</sup>. 즉 기존 연구에서 양국의 통일에 대한 방식이 1970년대초부터 차이가 나서 양국 연대의식이 약화되었다고 확인되었다. 특히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이 함락되었고, 북베트남이 임시 정권을 수립한 이후 북한은 베트남식

---

<sup>24</sup> 도미엔. 2019. 「베트남 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pp.196-198



무력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소극적인 보도만 하였다. 남베트남 사이공이 함락된 4월 30일 이후 로동신문의 전체 보도를 보면 05월 03일과 04일을 포함한 5건이 베트남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것의 전부였다. 구체적으로 1975년 05월 03일에 보도된 ‘영웅적 투쟁의 빛나는 결실, 전체 월남인의 위대한 승리<sup>25)</sup>’, ‘당과 정부 간부들이 남부 월남공화국 대사관을 방문하고 남부월남 인민해방무장대와 인민의 승리를 열렬히 축하<sup>26)</sup>’, 그리고 1975년 05월 04일에 로동신문에 실린 ‘반미구국투쟁에서 월남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열렬히 축하한다<sup>27)</sup>’, ‘조선인민은 형제적 월남인민이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새로운 단계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한다<sup>28)</sup>’ 는 기사들만 있다. 베트남의 승리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면 ‘위대한 력사적 승리’, ‘남부월남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성스러운 혁명위업’ 이란 대중적인 표현이 계속하여 반복되기만 하였다. 즉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였으나 베트남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고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베트남측도 북한의 이러한 소극적인 보도에

---

<sup>25)</sup> 로동신문. “영웅적 투쟁의 빛나는 결실, 전체 월남인의 위대한 승리”. 1975.05.03

<sup>26)</sup> 로동신문. “당과 정부 간부들이 남부 월남공화국 대사관을 방문하고 남부월남 인민해방무장대와 인민의 승리를 열렬히 축하”. 1975.05.03

<sup>27)</sup> 로동신문. “반미구국투쟁에서 월남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열렬히 축하한다”. 1975.05.04

<sup>28)</sup> 로동신문. “조선인민은 형제적 월남인민이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새로운 단계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한다”. 1975.05.04

대해서 실망을 감추지 못하였다.<sup>29</sup> 이렇게 연대의식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베트남에 대해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것이 베트남의 1975년 이후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북한 내부 권력을 강화하는데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북한의 로동신문에 실린 전체 보도를 고찰한 결과에 의하면 베트남이 통일을 이룩한 이후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베트남의 승리에 대한 북한의 보도가 매우 적은 반면에 베트남의 사회주의건설 성과라는 내용이 있는 보도가 50건이 넘어 압도적이다. 예를 들자면 1977년 베트남 국경절 32주년 기념 평양시기념집회에서 ‘월남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다’고 강조하는 연설이 있었다. 또한 ‘형제적 남부월남인민에게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들을 실었다.

“오늘 남부월남인민은 월남로동당의 령도 밑에 북부월남인민과 함께 전쟁의 상처를 씻고 전국적 규모에서 나라의 재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인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투쟁에 의하여 나라의 면모가 날로 달라지고 있다. 파괴되었던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되고 생산이 정상화되어가고 있다. 거의 모든 주요도로가 개통되었으며 끊어졌던 땅을 가꾸어 다시 씨앗을 뿌리고 있다. 관개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농업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들에서는 다시금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문맹퇴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민생활이 안정되어가고 있다. 나라의 재통일은 전체 월남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남부월남인민은 전국적 규모에서 나라의 재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지난해 1월 호치명시에서 민족적통일을 위한

---

<sup>29</sup> 도미엔. 2014.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pp.102

남부월남정치협상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은 나라의 재통일을 위한 월남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되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 남부월남인민이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전후 새로운 단계의 투쟁에서 거둔 모든 성과들을 자신의 성과와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열렬히 축하하고 있다.”<sup>30</sup>

다른 ‘형제적 월남인민은 새생활을 훌륭히 건설하고 있다’는 기사에도 베트남의 사회주의건설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월남에서 새생활을 건설하는 인민들의 창조적 노력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형제적 월남인민은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한 커다란 기쁨을 안고 새로운 단계의 혁명과업을 이룩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의 상처를 하루 빨리 씻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월남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 있다. <모든것을 생산을 위하여, 모든것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조국의 번영과 위혁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사회주의 혁명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월남에서 수많은 공장들이 복구되어 생산에 들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고 있다. 하이퐁세멘트공장 노동자들은 올해 상반기도세멘트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한 그 기세도 하반기도 생산에서도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전력, 석탄, 야금, 기계, 화학을 비롯한 중공업부분에서 훌륭한 생산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것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주고 있다. ...월남인민은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고 있다.”<sup>31</sup>

이와 같은 기사들은 1975년부터 1978년까지의 시기에 계속해서 보도되어 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가 북한의 관심을 끌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 인민을 동원하기 위해 북한의 보도에서 자주 실린

<sup>30</sup> 노동신문. “형제적 남부월남인민에게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추원한다”. 1976.02.15

<sup>31</sup> 노동신문. “형제적 월남인민은 새생활을 훌륭히 건설하고 있다”. 1976.08.14

또 다른 주제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베트남 보도를 포함한 각국 보도에서 ‘북한은 미제의 전쟁 책동을 규탄한다’는 내용,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소개한다’는 내용, ‘월남인민은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격렬히 지지할 것이다’라는 내용 등이다.

위와 같은 보도들은 당시 북한 정권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스탈린 사망이후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확립하였으며 소련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주성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 주체사상은 자력갱생적 삶을 추구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sup>32</sup> 1975년부터 북한은 이 자주성을 강조한 평화통일<sup>33</sup>을 강조하였으므로 베트남의 무력 통일을 받아들이기 힘들며 북한 인민에게 정부의 통일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건설 즉 정부가 채택한 노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하여 베트남의 통일보다 사회주의 건설 성과에 집중적으로 반영시켰다. 베트남이 통일을 이룩한 이후 북한 정권에게 더욱더 자극이 되었으나 북한의 평화통일 방식이 그 효과를 아직 증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며 정당화하기 위해서 베트남 통일 방식이 아닌 사회주의 건설 성과로 국내 주의를 집중시켜야 했다. 노동신문에 실린 보도들에 의하면 베트남 사회주의 성과를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밝은 전망, 빛난 성과 그리고 올바른 사회주의 국가 노선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인민들에게 심어주려는 북한

---

<sup>32</sup> 김학민. 2015. 남북 통일정책의 특성 비교: 해방이후 이승만 . 김일성의 ‘자주와 국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8 권 1 호. pp.40

<sup>33</sup> 도미엔. 2014. 「1975 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pp.113

정권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폭 넓게 선전하려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이 수립하였던 주체사상이 존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본다.

### 3) 통일 이후 베트남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송환 문제

북-베는 베트남의 통일 방식을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통일 이후 베트남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송환 문제들도 안고 있었다. 당시 남베트남의 마지막 한달 동안 탈출한 한국 교민과 대사관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베트남 통일 이후에도 탈출하지 못하고 5년 이상 기다려야 했던 한국대사관 공관원들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베트남에는 2만명의 한국 교민들이 있었는데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사업가와 한국 회사 또는 외국계 회사의 직원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베트남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sup>34</sup>

하지만 1975년 4월 9일에 한국 해군 함정이 도착하여 남베트남에 있던 교민들이 탈출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 그러나 나머지 떠나지 못한 교민들도 많았다.

특히 당시 1975년 이후 베트남에 5년동안이나 억류되었던 한국의 외교관 3명이 있었는데 1980년에 돌아왔으나 이 문제 때문에 북한과 베트남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1978년까지 제3국에서 벌어졌던 한국외교관 석방 협상에 베트남과 나란히 동석하여 한국, 북한, 베트남 3자

<sup>34</sup>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3235.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3235.html)

회담을 하고 있었다. 북한이 베트남측에게 이 외교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1979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 편에 섰던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급이 가기 시작하였고, 결국 북한이 미워진 베트남 하노이 정부는 한국 외교관들을 조건없이 송환하게 되었다. 게다가 1978년에 미국과 베트남은 관계 정상화 과정에 있었으나 당시 미국은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를 중지하였다고 베트남 정부에서 평가하였다. 심지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도 베트남을 여러 측면으로 경제 발전과 외교를 견제하고 고립시켰다. 이 시기 미국은 관계 정상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캄보디아 문제와 POW/MIA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은 미국과 정상화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으며 한국 외교관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 2. 1979년~1993년대: 실제적 관계 악화, 도이머이로 인한 정치적 경계, 경제 교역량 증가

이 시기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내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부적 요소는 1979년 이전의 시기에 북한과 베트남 정치 체제 속에서 1950년대부터 생겨난 연대의식과 베트남 사회주의 건설 성과라는 계기를 활용한 북한의 권력 강화 의지 등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특히 1986년 이후 베트남 쩌응찐 주석은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를 채택한 반면, 북한 김일성 주석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가 개량수정주의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폐쇄적인 계획경제를 택하였기 때문에 양국의

연대의식과 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에 의해 행하려고 한 북한의 체제 강화 계기의 약화는 양국 관계 사이에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최악 상태의 시기도 있을 정도로 양국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시기에는 북한과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미국과 전쟁을 치렀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 때는 서로 의지하며 비슷한 길을 걸어왔었다. 이후 양국 관계에 있어 연대의식이 약화되었으나 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라도 활용해 북한의 내부 정치 권력 강화가 가능해졌다면 이 시기에는 그러한 계기는 커녕 양국 관계를 유지할 여지도 사라졌다고 할 정도이다.

따라서 이전의 시기에서 살펴봤던 내부적인 요소는 이 시기에 양국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작동 요인이 아니며 대신 베트남 정부가 택하고자 한 진로 즉 베트남 내부 상황에 대해 주목하여 분석하는 것이 맞으나 역시 베트남 정부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요인도 외부적인 요인인 세계 정세이므로 본 논문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 결정자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 및 이 정책들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들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 외부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외부적 요인은 당시 세계 정세인데 1979년부터 1993년까지의 시기는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몰락, 소련의 붕괴, 세계의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각국 정책 등은 양국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특히 1970년대 중월 전쟁 때 베트남과 중국 관계가 나빠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을 비난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 이후에 베트남 정부가 세계 정세에 의해 북한이 가고자 하는 진로와 다른 개혁개방 정책을 택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미국 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기에 양국 간에 정치적 경계가 높아지고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불만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양국 관계의 성격을 반영하여 “실제적 관계 악화, 도이머이로 인한 정치적 경계, 경제 교역량 증가” 라고 지었다. 그리고 북-베 관계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의 정책, 정책 결정자 등 내부적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 정책을 좌우하는 국제 정세도 고찰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이 시기 양국 관계를 통괄하기 위해 북한과 베트남의 상호 방문 및 협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중월 관계 분위기 속에 전개된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베트남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 그리고 이와 같이 전개된 이해 관계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1) 베트남과 북한의 상호방문 및 협력

북한과 베트남의 표면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양국 상호 방문 및 협력 상황이 어떠했는지 고찰해보겠다. 먼저 양국 상호 방문 상황 즉 인사 교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5> 및 <표6>에서 반영되는 베트남과 북한의 상호 방문 기록에 의하면 1979~1993년 기간에 양국 간 정상급 방문이 없었으며 가장 높은 급의 방문은 북한의 경우 1992년 1월에 김영남 외교부장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었고, 베트남의 경우에 보찌퐁 베트남국가이사회 위원장의 방문이었다. 나머지 양국 인사 교류는 산하 기관, 그리고 민간 레벨에서 정기적, 또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베트남 인사의 방북 (1979~1993)

년도	방문 인사
1980 년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와 당 창건 35 돌 기념 경축행사에 베트남공산당 대표단 참가
1981 년	북한 사로청 제 7 차 대회에서 호치명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참가
1983 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
1983 년	베트남 당 및 정부 대표단
1986 년	정부무역대표단
1988 년	공화국 창건 40 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베트남국가이사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및 국가 대표단
1989 년	1 월 정부 무역대표단, 10 월에 공보성대표단
1990 년	공산당대표단
1991 년	2 월에 베트남 국가계획위원회 대표단, 10 월 노동총연맹 대표단, 11 월 여성대표단, 12 월 정부무역대표단
1992 년	베트남당 및 국가대표단

자료: 조선중앙년감 (1979~1993년), 로동신문, 평양 베트남 대사관

<표6>: 북한 인사의 베트남 방문(1979~1993)

년도	방문 인사
1986 년	2 월 정부무역대표단 12 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
1987 년	정부무역대표단
1988 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대표단
1989 년	정부대표단
1990 년	2 월에 외교부대표단, 6 월에 당국제부대표단, 8 월에 경제대표단
1991 년	정부대표단
1991 년	5 월에 정부대표단, 10 월 국가계획위원회대표단, 11 월 정부경제대표단
1992 년	김영남 외교장관

자료: 조선중앙년감 (1979~1993년), 로동신문, 평양 베트남 대사관

북한과 베트남의 상호 방문 기록 외에도 양국이 서로 인사 교류한 기록도 있는데 양국 우호 관계 기념일, 인민군의 날, 양국 독립 기념일, 노동당 설립 기념일 등과 같은 양국의 전통적인 기념일을 맞이하여 군중집회, 양국 역사 다큐멘터리 상영을 하며, 서로 축하해주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였다.<sup>35</sup> 따라서 양국 관계가 이러한 전통적인 활동에 의해서 명목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는 민간 교류 레벨에만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 양국 관계가 명목적 전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매우 제한적인 민간 교류 수준에만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베트남은 1979~1993년까지 14년이라는 기간에 정치적으로는 표면적으로 전통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 나타난 실제적 교류 즉 경제 측면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선 1990년대가 되어야 비로소 1991~1993년 시기에 경제 협력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으며<sup>36</sup> 1991년에 경제 협정을 맺게 되었고<sup>37</sup>, 이 경제 협정을 바탕으로 1991년에 북한은 장기 무이자 대출로 헨강 수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돕기 시작하였다<sup>38</sup>. 그리고 1993년에 들어서 베트남-북한의 멀 베리

<sup>35</sup> Báo nhân dân Việt Nam(베트남 인민 신문) (1989-1993), 로동신문 (1979-1993)

<sup>36</sup> Báo nhân dân Việt Nam(베트남 인민 신문). “Phát triển quan hệ kinh tế Việt Nam- CHDCND Triều Tiên” (베트남-북한 경제 관계의 발전). 1990.08.24

<sup>37</sup> Báo nhân dân Việt Nam(베트남 인민 신문). “Quan hệ Việt Nam- Triều Tiên” (베트남-북한의 관계). 1991.03.08

<sup>38</sup> Báo nhân dân Việt Nam(베트남 인민 신문). “Quan hệ Việt Nam- Triều Tiên” (베트남-북한의 관계). 1991.03.08

실크 합작 회사(비코 세리)를 설립하였다.<sup>39</sup> 그러나 1994년에 베트남 측은 합작 투자에서 탈퇴했으며, 북한 측만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그리고 2001년 북한 측은 베트남에게 이 공장을 판매하였다<sup>40</sup>. 양국이 체결하였던 협정은 <표7>에서 반영된 것처럼 총 12건 체결하였는데 실제적 교류 활동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7>: 베트남과 북한 간의 협정 (1979~1993)

날짜	협정 이름
1981년 09월 27일	1981~1982 년 물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양국 정부 간 의정서
1986년 02월 07일	1986~1990 년 양국 정부 사이 교역 가격 결정 및 가격 조정 원칙에 관한 의정서
1986년 02월 07일	1986 년 물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양국 정부 사이 의정서
1986년 08월 12일	1987 년 물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양국 정부 사이 의정서
1987년 02월 14일	1988 년 물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양국 정부 사이 의정서
1989년 01월 11일	1989 년 물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양국 정부 사이 의정서
1989년 06월 05일	경제 과학 협력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1990년 04월 16일	1990 년 물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양국 정부 사이 의정서
1991년 05월 02일	양국 외교부 간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91년 05월 02일	1991 년 양국 정부 사이의 문화 및 과학 협력 계획

<sup>39</sup> Báo nhân dân Việt Nam(베트남 인민 신문). “Khánh thành công ty liên doanh đầu tư Việt Nam – CHDCND Triều Tiên”(베트남-북한 실크 합작 회사 완공) 1993.10.13

<sup>40</sup> 주북한 베트남 대사관 자료 참조

<https://vnembassy Pyongyang.mofa.gov.vn/vivn/bilateralrelationship/The%20agreements%20signed/Trang/default.aspx>

1991년 11월 02일	양국 정부 간의 수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경제 및 기술 협력 협약
1991년 12월 06일	양국 정부 간의 무역 및 지불 협정

자료: *Nghị định thư giữa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về rà soát tình trạng hiệu lực của các điều ước và thỏa thuận quốc tế giai đoạn 1950~2007*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부 간 1950~2007 년 기간 국제 협약 상태 및 이의 효력에 대한 검토)

이 협정의 명단에 의하면 양국 간에 물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실제로 양국의 무역은 체결한 협정들에 따라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인가?

<표8>: 북한의 대베트남 수입 및 수출 현황(1979~1993)

(단위:US\$백만)

년도	1981~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수출	-	0.05	0.05	0.97	1.93	4.09
수입	-	-	0.64	0.33	0.07	0.04

자료: IMF

<표9>: 베트남의 대북한 수입 및 수출 현황(1979~1993)

(단위:US\$백만)

년도	1981~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수출	-	0.3	0.92	0.54	0.54	0.58	0.3	0.07	0.04
수입	-	-	-	1.32	0.06	0.05	1.06	2.13	4.5

자료: IMF

기존 연구에서 북한과 베트남은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양국의 무역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북한 측에서 베트남과의 무역을 활성화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표7>를 보면 알 수 있듯 매 단계 양국 물품 교환 및 지불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의정서가 체결되었으나 실제 무역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당시 양국 무역 현황은 어떠했는지 한 번 살펴보겠다. 베트남과 북한이 IMF에 통보한 데이터는 차이가 조금씩 났으나 이를 통해서 양국의 무역 규모가 당시 얼마나 미미하였는지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과 베트남이 IMF에 신청한 데이터는 1981년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과 베트남의 무역은 그 교류량이 1981년부터 1993년까지 기간에 매년 4.5백만불을 초과한 실적이 없었으며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즉 1986년부터는 이전 시기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베트남은 1986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으로 300천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1987년에 920천불로 이 시기에 수출량이 가장 큰 것으로 보였다.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1988년부터 시작하여 1,320천불을 기록하였으며 1993년이 되어서 4,500천불로 증가한 경향이 보였다. 주요 수출 품목 관련하여, 1991년 12월 06일에 체결된 양국 정부 간의 무역 및 지불 협정<sup>41</sup>에 따르면 북한은 베트남으로 아연, 건축 강철, 공작 기계, 시멘트,

---

<sup>41</sup>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và thanh toán giữa Việt Nam và Triều Tiên” (베트남과 북한 간의 무역 및 지불 계약) 1991.06.12.

<http://www.trungtamwto.vn/chuyen-de/243-hiep-dinh-thuong--mai-va-thanh-toan-giua-viet-nam-va-trieu-tien>

내화물, 비료, P.V.C, 도자기 절연체, 후 블론, 한약, 소비재 등 총 11가지 종목을 수출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도 북한으로 쌀, 주식, 크로 마이트 광석, 인회석, 소금, 쌀과 옥수수, 고무, 코코넛 오일, 땅콩 오일, 황마시나몬, 초본 성분, 소비재 주로 13가지 종목을 수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베트남에 쌀을 공급해주면 이를 현물로 결제하겠다는 구상무역방식을 제의해본 적도 있었다.<sup>42</sup> 따라서 양국 교역량은 이처럼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교역량이 증가한 추세이다. 따라서 경제 측면에서 양국 관계가 보다 활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양국 상호 방문과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양국 외교 관계 분위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의 시기와 같이 표면적으로 민간 레벨에서 명목적인 관계를 전개하였지만, 실제로 경제 협력이 활성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왜 혈맹이었던 북한과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명목상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을까? 양국 관계가 어떠한 배경에서 전개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내외적 요인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분석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진정한 성격과 모습을 밝히고자 한다.

## 2)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 시기 베트남-북한 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대사를 철회해야 할 때가 있었다. 바로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대사를 소환하고 북한 주재 베트남대사관에서 직원을 몇 명 남겨 두었던 1979년이였다. 쓰엉찐득

<sup>42</sup> 경향 신문. “北韓(북한), 식량·原油(원유)공급 요청” (검색일: 1993.01.05)

베트남 특명전권대사가 베트남 Tri Thuc Tre (젊은 지식인) 잡지에서 나눈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이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관의 직원으로 지낸 1975~1988년의 시기와 특명전권대사로 지낸 1992~1996년의 시기 동안 베트남-북한 외교 관계에 있어 1979년의 시기는 최악의 시기라고 하며 이때 베트남은 대사급에서 공사급으로 전락되었다고 하였다.<sup>43</sup>

베트남-북한의 상호 방문 기록을 보아도 이때가 최악의 시기임을 발견할 수 있다. 1979년부터 무역 거래 기록이 없으며 양국의 상호 방문 기록도 없었다. 1980년대 중반이 되어야 비로소 양국 관계가 활발해졌다. 그러면 양국 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당시 양국 외교관계가 전개되는 배경에 여러 내외적 요인이 작동하였는데 이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적 요인은 양국의 내부 상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강대국인 소련, 미국, 중국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인 캄보디아도 북한과 베트남 관계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기 북한과 베트남의 국내 정치적 원인과 국제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이를 중심으로 깊이 들여다보고 분석하며 이 시기 어떤 이해 관계가 전개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의 대공산주의국가 외교 정책’ 부분에서 서술하였던 것처럼 베트남은 중국과 소련 간에 어느 한쪽으로부터 영향받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친소련 정책을 택하였고, 친소 국가였다.

---

<sup>43</sup> Tô Lan Hương. “Đại sứ Dương Chính Thức và kí ức về 2 thập kỉ gắn bó với Triều Tiên” (Duong Chinh Thuc 주북한 베트남 대사 20 년간의 기억) <https://cafebiz.vn/nguyen-dai-su-vn-tai-binh-nhuong-toi-may-man-duoc-biet-mot-trieu-tien-39rat-khac39-giau-co-va-coi-mo-20180611141914906.chn>.

중소분쟁에서도 대놓고 소련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였다. 베트남과 중국은 표면적으로 볼 때 서로 비슷한 공산주의국가로서 이념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우호적 관계<sup>44</sup>이지만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서로 정치적 경계 속에서 표면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당시 북베트남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친소련 지도부가 들어섰다.<sup>45</sup> 베트남은 남부 베트남에 대한 사회주의 정책들 중에 화교들에 대한 정책들도 펼쳤는데 이 정책들을 실시하면서 화교들이 탈출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sup>46</sup> 구체적으로 베트남이 통일을 거듭하자 화교들에 대한 베트남 국적 취득 장려 정책들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면서 1977년 말과 1978년 초에 베트남 남부에 있는 많은 화교들이 베트남을 탈출하기 위해 바다를 넘어서 난민이 된 사람이 많았다. 1978년 6월 초 화교 난민 수가 10만 명에 이르렀으며 7월 중순까지 총 160,000명을 초과하였다. 1970년대 후반 베트남은 대부분 화교들이 자발적으로 베트남 시민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베트남 국적 취득을 장려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중국은 당시 개혁개방 정책<sup>48</sup>을 추진하기 위해

<sup>44</sup> 박태균. 2015. 「베트남 전쟁,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한겨레 출판사. pp.70

<sup>45</sup> 김명섭, 최정호. 2008.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의 원인에 관한 재고찰」. 『정치외교학과』 (연세 대학교). pp.145

<sup>46</sup> 김명섭, 최정호. 2008.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의 원인에 관한 재고찰」. 『정치외교학과』 (연세 대학교). pp.145

<sup>47</sup> Xiaorong Han. 2009. "Spoiled Guests or Dedicated Patriots? The Chinese in North Vietnam, 1954-1978".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 No. 1. pp. 1-36.

<http://ngihencuquocte.org/2013/10/29/the-chinese-in-north-vietnam-1954-1978/>



화교중시 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화교의 베트남 국적 취득 문제를 두고 이 시기 양국 사이에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베트남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보면 중소 갈등도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부터 이 시기까지 중소 간에 불화와 정치적 경계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1950년대말 중·소 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됐으며, 모택동은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이 전임자 스탈린을 비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스탈린주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중·소동맹은 분쟁까지 이어졌다<sup>49</sup>. 중국은 1956년부터 스탈린 우상화를 비판하여 소련과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 갈등이 점차 심해졌다. 특히 1961년 10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 22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중국은 마침내 소련과 결별을 결심하게 된다. 소련이 중국의 우방국인 알바니아를 공격하면서 중국을 사회주의 진영에서 고립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sup>50</sup> 이때부터 마오쩌둥은 소련에 대한 기대를 접었으며 양국 관계는 어두워졌다<sup>51</sup>. 따라서 이 소원해진 양국 관계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나아지기는 커녕 분쟁이 고조된 시점이 많았다. 예를 들자면 1970년대 초부터 소련군대가 몽골에 주둔한 때나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때가 있었다. 그리고 1979년

---

<sup>48</sup> 김명섭, 최정호. 2008.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의 원인에 관한 재고찰」. 『정치외교학과』(연세 대학교). pp.145

<sup>49</sup> 표도르 쟈르치즈스키. 2018. 「중·소 분쟁과 북한의 외교전략」. 『북한연구소』. pp.126

<sup>50</sup> 임 방 순, 한 마크 만균. 2016. 「중,소 분쟁 격화기 중,소의 대북한 원조경쟁과 북한의 자주노선: 1961~1967」. 『한국공공사회연구소』(중앙 대학교). pp.53

<sup>51</sup> 최명해. 2009.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pp.136

중국.베트남 전쟁도 1970년대 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의 대립이 극에 달하게 했던 것에 무관하지 않다. 친소였던 베트남은 1979년에 우위를 유지시키기 위해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친중 노선을 걷던 캄보디아를 공격하자 중소 분쟁이 더욱 더 심화되기도 했고 베트남과 중국 관계도 심화되었다.

이어서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1978년에 소련과 베트남의 우호조약체결에 불안을 느껴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수교를 하기도 하였다.<sup>52</sup> 무엇보다도 중국은 예전부터 베트남의 ‘골목대장<sup>53</sup>’을 좋아하지 않았다. 중국의 또 다른 주변국인 라오스 캄보디아에 비해서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베트남을 견제하기 위해서 차단도 시도하였으며 가장 고조된 시점인 1979년에 중국.베트남 전쟁을 벌였다.

친중노선을 걷던 캄보디아의 상황도 살펴보겠다.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당시 시아누크가 중국 북경의 보장 아래 안전한 항구인 북한에 갈 수 있었다<sup>54</sup>.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이웃 나라인데, 전통적으로 골목대장인 베트남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 1975년 4월에 캄보디아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들은 극좌익도 아닌 매우 심한 극좌익이며 캄보디아에서 만행을 많이 저질렀고 인구의 4분의 1을 살해시켰다. 또한 베트남 국경에서 도발도 하였다. 이러한 캄보디아의

<sup>52</sup> 경향신문. “3極体制(극체제)속東北亞(동북아) 새秩序(질서)” (검색일: 1979.01.01)

<sup>53</sup> 박태균. 2015. 「베트남 전쟁,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한겨레 출판사. pp.69

<sup>54</sup> Do Dieu Khue. 2019. “Was the “China Factor” Working? U.S. Policies Towards Vietnam,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Late 1970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p.261.

베트남 국경에서의 만행들을 견제하여 자국의 안보와 전통적 우위를 지키기 위하여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침공하였다. 1979 년 베트남의 침공 이후 망명길에 오른 노르돔 시하누크를 위해서 김일성 주석은 평양에 망명처를 제공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시아누크가 북한과 이렇게 친근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팩터의 작동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시아누크는 중국 북경의 보장 아래에 북한으로 망명길에 오를 수 있었으며<sup>55</sup> 이것은 인도차이나에서 소련의 영향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내부적 정치 상황을 보면 당시 중국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북한의 중소 분쟁 간에 펼쳤던 외교사를 보면 1950 년대 중반~60 년대 중반에는 ‘노골적인 친중 노선’, 1970 년대에는 ‘신중한 친중 노선’ 그리고 1970 년대 말~80 년대 말에는 ‘신중한 친소 노선’ 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지만<sup>56</sup> 그 동안 친중노선이 우세였다. 소련은 북한에 원조를 약속했지만, 1961 년부터 점차 중국을 지지하고 중국으로 편향되어 가는 북한을 소련 쪽으로 되돌리지 못함에 따라 1962 년부터 처벌적 조치로 약속한 원조를 감축하거나 중단하기 시작하였다.<sup>57</sup>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중국의 원조를 얻어내려고 표면적으로 중국을 지지하는 태도를 애써

---

<sup>55</sup> 위의 논문. pp.261

<sup>56</sup> 표도르 쉘치즈스키. 2018. 「중·소 분쟁과 북한의 외교전략」. 『북한연구소』. pp.126-131

<sup>57</sup> 임 방 순, 한 마크 만균. 2016. 「중,소 분쟁 격화기 중,소의 대북한 원조경쟁과 북한의 자주노선: 1961~1967」. 『한국공공사회연구소』(중앙 대학교). pp.58

보여주었다.<sup>58</sup> 따라서 중국-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는 동안 중국을 지지하고 베트남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다.

1970 년대에 들어 북한과 캄보디아 관계는 북한과 베트남 관계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였다. 전술한 것처럼 캄보디아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친중노선을 같이 걸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과 캄보디아 관계가 예전부터 좋았다. 북한의 대공산주의국가 외교 정책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캄보디아는 1960 년대 중반부터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노로돔 시아누크 왕자와 후임 대장 김일성 장군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캄보디아-북한 관계는 캄보디아의 노로돔 시아누크와 북한의 김일성 및 김정일과 같은 양국의 전 지도자들의 강한 인맥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1964 년 시아누크 국왕은 북한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서울 정부와 관계를 끊고 평양과 외교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시아누크 국왕의 결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에 의해 무시 당했던 김일성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시기 북한이 캄보디아를 지지한 원인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위세를 높이며 여러 국가와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도 그 중 하나였다. 따라서 북한은 캄보디아에서 중국-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중국,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군을 철수시키기 위하여 경제 봉쇄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통해 베트남을 압박하였다. 이때문에 베트남이 10 년 후에 캄보디아에서 철수할 때까지 외교적으로

---

<sup>58</sup> 김태운. 2016. 「북한의 한반도 주변 대 4 강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 『과주한국학술 정보』. pp.156

고립되면서 소련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주요 국제 경제기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이 모든 국제적 배경과 자국 정치 상황을 계기로 중국은 이전 동맹국 베트남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명분으로 국경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에 의해서 북한-베트남 관계도 많이 나빠졌으며 심지어 최악의 상태로 변하였다.

그러면 북한-베트남 최악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중국-베트남 전쟁에 따라 보이는 북한의 반응은 특별히 주목을 받을 만하다. 예를 들자면 1979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북한은 "무력침공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용추락"이라고 비난했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 호경은 말레이시아 지방신문들과 회견에서 북한이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요구하는 동남아국가 연합(아세안)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sup>59</sup>

그리고 북한은 베트남군과 맞서 싸우고 있는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에 대한 원조를 다짐했다고 카우삼판 구 크메르루즈 정권수상이 1980년 03월 15일에 밝히기도 하였다.<sup>60</sup>

특히 북한은 중국-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펼쳤다. 북한의 비동맹회의를 두고 한 동태를 보면 그 정책들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외교부에서 공개한

---

<sup>59</sup> 동아일보. “駐韓美軍(주한미군) 철수요구 캄國內(국내) 베트남軍(군)도 北韓(북한) 美聯大使(연대사)” (검색일: 1979.11.05)

<sup>60</sup> 경향신문. “화물선潛入(잠입) 베트남脫出(탈출) 蔚山(울산)기항-救援(구원)을 호소” (검색일: 1980.03.17)

80년대 북한의 대동남아 국가 외교 문서들에 따르면 1980년 북한사절단의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의 내용에 관련하여, 북한은 캄보디아에게 비동맹회의의 응원 입장과 함께 동남아의 평화와 자유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그리고 아세안은 베트남이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61</sup> 그리고 북한과 말레이시아 회의를 두고 한국 외교부에서는 북한은 양국간의 통상 증진을 사절단 파견의 주목적으로 내세웠으나 내년 비동맹회의를 겨냥한 접근시도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때 북한에게 비동맹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문제를 통해서 동남아 국가 비동맹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입장을 살펴보면 1979년 6월 6일 베트남 대사는 베트남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랫동안 미국과의 전쟁 이후부터 북한은 비우호적인 태도와 최근 베트남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표시하였다. 북한은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침략을 명백히 지지했다. Pol Pot 정권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반면 베트남을 공격하였다. 최근에 북한 정부는 비동맹회의를 하바나가 아닌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베트남은 오랫동안 북한의 행동을 지켜왔으며,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실제 상황에 대해 북한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간주 될 수 없다.<sup>62</sup>

---

<sup>61</sup> 한국 외무부 자료. 1980. “북한사절단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0)”

<sup>62</sup> “Hungarian embassy in Canada, ciphered telegram, subject: Vietnamese-DPRK relations”. 8 June 1979.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5837>

이에 따르면 베트남은 북한의 태도 및 행동에 대해 실망과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심지어 북한은 더 이상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라고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전 캄보디아 국가 주석 시아누크와 크메르 루즈 수상 키우삼판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반베트남연합전선구성협의를 가능케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1981년 03월 16일에 당시 평양 회담을 방송논평하면서 종전과는 달리 북한을 북조선이라고 호칭하고 반베트남연합전선구성회담 장소를 제공한데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였다.<sup>63</sup>

이렇게 양국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과 북한의 다양한 국내외적 배경과 요인들이 서로 작동하면서 얽힌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이 시기 양국관계는 적대적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2년이 되어야 비로소 양국관계는 무역협정으로 불화를 해소하게 되었다.<sup>64</sup> 그리고 5년만인 1984년에 북한의 신임 김정준 주 하노이 대사가 06월 24일에 구옌푸로 베트남 국가 평의회 부의장에게 신임장을 제청받음으로써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관계가 5년만에 다시 정상화됐다고 일본신문이 26일 보도하였다. 북한도 지난 79년에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침공을 이유로 주하노이 북한대사를 철수시키는 한편 임시대리대사급으로 격하시켰다.<sup>65</sup> 베트남도

<sup>63</sup> 동아일보. “反越聯合戰線(반월연합전선)회담場所(장소)제공 非難(비난)받는 北傀(북괴)”  
(검색일: 1981.03.23)

<sup>64</sup> 동아일보. “오늘의北韓(북한) 베트남과 不和 (불화) 해소일환… 貿易協定(무역협정)체결” (검색일: 1981.09.30)

<sup>65</sup> 경향신문. “北傀(북괴)·베트남 外交(외교) 정상화” (검색일: 1984.06.26)

마찬가지로 1979 년에 베트남대사를 철수시키고 공사급으로 격하시키기도 하였다<sup>66</sup>. 그러나 양국 관계의 이러한 정상화 분위기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1986 년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둘러싼 외교 정책들을 두고 양국 관계는 또 정치적 경계, 굴곡 그리고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과 베트남은 1984 년 외교관계를 복원했으나, 이후에도 개선시킬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 1986 년 베트남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도이머이’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1992 년 베트남이 한국과 수교한 이후 1995 년 미국과 수교한 것도 북한의 시각에선 배신이었으며 양국 관계는 침묵 상태에 빠졌다.

### 3) 베트남 개혁개방 노선 채택

1950년부터 혈맹 관계를 맺은 이후 북한.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의 시기를 거쳐서 연대의식이라는 끈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같은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시기는 베트남이 통일을 이루면서부터이며 양국 사이에 서로 연결되는 끈이 연약해졌다. 1979년부터 양국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양국 관계가 그나마 개선되며 활발해졌다. 그간에 두 나라 사이에 매우 다양한 변화와 변수가 일어나 굴곡의 시기, 정치적 경계의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그중에는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

<sup>66</sup> Tô Lan Hương. “Đại sứ Dương Chính Thức và kí ức về 2 thập kỉ gắn bó với Triều Tiên” ( Dương Chính Thức 주북한 베트남 대사 20 년간의 기억) <https://cafebiz.vn/nguyen-dai-su-vn-tai-binh-nhuong-toi-may-man-duoc-biet-mot-trieu-tien-39rat-khac39-giau-co-va-coi-mo-20180611141914906.chn>.



정책을 둘러싼 배경과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혁개방은 비슷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왔던 두 나라가 전혀 다른 선택으로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된 결정적 전환점이다. 다시 말해, 북.베 사이 갈등의 끝은 1979년부터 시작하여 1986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양측 사이에 구조적인 차이가 나타나며 본격적으로 깊어지게 된다. 베트남에서는 1986년부터 ‘개방을 위한 시기’라고 부를 정도로 개방 노선을 지원해주는 외교 정책들이 펼쳐짐에 따라 중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라든가, 국제 화합 추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등 여러 개혁개방 정책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베트남은 북한이 채택한 노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양국 관계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 (1) 소련 붕괴, 사회주의 몰락 및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

베트남과 북한이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양국이 처한 배경이다. 그 배경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베트남과 북한이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배경을 알아볼 것이다. 당시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 몰락으로 이어졌으며 공산권 국가들로 하여금 노선을 채택하는 데 많은 고민과 과제를 안게 하였다. 소련은 1922년 12월 30일에 탄생한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서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통해 독립적이고 원심력적인 민족주의를 통제해왔다.<sup>67</sup> 소련은 원래 사회주의 체제와 민족간 연방체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이 두가지 요소로 인해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시기부터 소련 연방이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가 사회주의 체제 위기, 잠재적 민족 문제 등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족, 국제적 여건으로 이어졌다. 이 연건들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회주의 연방체제를 물려받은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통해서 체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계획 통제 경제체제의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키며 가격개혁을 주저하는 등 경제난을 일으켰다. 이는 체제 붕괴의 주요 원인이다.<sup>68</sup> 그러다가 1991년에야 소련이 사라졌으나 이처럼 이미 1991년 전부터 몰락할 신호들이 나타났었다. 1960년대말, 1970년대에 소련의 몰락이 임박했다고 예견한 인물들이 많았다.<sup>69</sup> 따라서 소련과 같은 아프리카라든가 공산권 국가들에서도 사회주의 퇴색 경향<sup>70</sup>을 보이거나 체제를 전회하려는 국가 정책 변경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즉 20세기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 구조적 개혁 요구에 직면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았다. 폴란드, 헝가리와 같이 가장

<sup>67</sup> 홍현익. 1996. 「소비에트 연방체제 붕괴의 원인」. 『세종연구소』(고려대학교). pp.209

<sup>68</sup> 홍현익. 1996. 「소비에트 연방체제 붕괴의 원인」. 『세종연구소』(고려대학교). pp.236

<sup>69</sup> 한정숙. 2011. 「소련 해체 후 러시아, 동유럽 역사 재조명: 소련의 해체, 클리오의 새로운 모습 -현실사회주의 몰락 후 러시아 역사학의 동향」. 『인문대학』(서울대학교). pp.14

<sup>70</sup> 경향신문. "퇴색하는 아프리카 社會主義(사회주의)" (검색일: 1985.07. 29)

앞선 동구 탈사회주의 국가가 있는 반면에 개혁을 거부했던 루마니아와 동독 등도 있었다.

베트남의 경우, 통일 이후 1976년 7월 사회주의공화국으로 정식 출범하였음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봉쇄를 당하였는 데다가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가 최악 상태였다. 이로 인해서 베트남은 1979년 중.월 전쟁 이후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고립된 상태에 빠져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전후 국토전반이 황폐화되어 있었으며, 산업구조 및 경제시스템이 연약해서 통일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남겼다. 이러한 환경에서 베트남 정부는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즉 베트남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6~1980년)을 수립하였는데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을 통해 식량과 생필품을 생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업화 노선은 실패로 귀결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회주의화 과정에 대한 인민의 반대 즉 사회경제적 통합이 필요한 남북베트남의 통합이 매우 약하였다는 것이 바로 첫번째 이유이다. 두번째 이유는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에 따라 경제 부흥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남베트남의 사회주의 운영 문제도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캄보디아 등 국제적 상황이 베트남의 통일 정책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베트남은 통일 이후에 공업화 노선을 진행하여 실패를 거듭하자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을 진행하였으나 실패를 맞아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정부가 이를 인정하여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시장경제 원리를 인정하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는데 이에 따라 많은 제자유화정책, 즉

‘신경제정책’이 도입되었다.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한 이후 부분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일정부분 베트남 경제가 호전되는데 도움을 준 것이라는 평가 있었지만 그래도 베트남 경제가 이후에 심각한 침체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정책 이후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기간에 신경제정책에 의한 자유화 방향으로 유도된 경제를 재통제하는 재통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경제 부문에 제한적인 개혁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sup>71</sup> 따라서 이 제한적인 개혁정책인 ‘신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베트남 공산당은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1986년 6차 당대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개혁, 개방에 대한 본격적인 착수가 일어나지 않았다. 1986년에 고령 혁명1세들을 퇴진시키고 젊은 개혁파들로 교체한 베트남의 제6차당대회 결정은 정책 노선이 이미 실용주의 쪽으로 기울었음을 말해줬다는 평가도 있었다.<sup>72</sup> 이 제6차당대회에서 베트남 정부는 경제개혁의 착수를 선언함으로써 이후 개혁,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985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로부터 시작된 국제정세의 변화와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중국, 동남아, 서구로부터 고립은 역시 북한과 상이해진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도이머이 정책의 도입에 큰 영향을 주었다.<sup>73</sup> 이어서 베트남은 1987년에 외국투자법을 공포했다가 1988년에 해외에서

<sup>71</sup> 권속도, 2009.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1976~1990년대」. 『대한정치학회보』 (영남대학교). pp.101~104

<sup>72</sup> 동아일보. “環太平洋(환태평양)의 自由化(자유화)바람” (검색일: 1986.12. 22)

<sup>73</sup> Lưu Văn Lợi. 2004. *Ngoại giao Việt Nam(1945-1995)*.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ông an Nhân dân. (Lưu Văn Lợi. 2004. 『베트남 외교 (1945-1995)』. 하노이: 인민공안 출판사)

베트남으로의 기술 이전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다.<sup>74</sup> 이 공포한 전문 42조의 외국인 투자유치법은 베트남이 서방측의 도움으로 경제를 재건해보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즉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베트남은 아세안에 가입시켜달라고 호소하는 등 다급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따라서 베트남은 도이머이라는 정책으로 이 시기에 개혁·개방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쓰여진 베트남 노동당의 제1서기는 1986년 제6차 당대회에서 베트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관료주의적 집중화, 배급제와 조직 관리 방식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혁하는 문제를 언급하였고 동시에 국가의 봉쇄 상황을 해소시키는 방안의 중요성을 밝혔다.<sup>75</sup> 이는 베트남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사를 보여주며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낳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정책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베트남은 세계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며 외국 투자 유치에 대한 내용이다.<sup>76</sup> 이와 함께 여러 측면에서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주로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그리고 대외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상당 부분 도입한 것이다. 특히 1989년에는 대부분 품목에서 시장가격을 공인하고 배급제를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이중 가격제 제거, 관료주의적 집중화의 해소 등을 도입하였다.

<sup>74</sup>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계획투자부). 2018. “30 năm thu hú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에 30년간 외국인 투자 유치). pp.34

<sup>75</sup> Lưu Văn Lợi. 2004. *Ngoại giao Việt Nam(1945-1995)*.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ông an Nhân dân. pp. 527 (Lưu Văn Lợi. 2004. 『베트남 외교 (1945-1995)』. 하노이: 인민공안 출판사. pp.527)

<sup>76</sup> 위의 책. pp. 523~534

이는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화 요소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당-국가체제와 사회주의 공유 개념은 유지하고 있었다. 도이머이는 기존의 계획통제체제를 급격히 이완시킨 것도 아니고 공산당의 역할을 감소한 것도 아니었다. 도이머이의 목표는 여전히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틀 속에서 생산력을 제고하며 공산당의 지배와 정치 이념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sup>77</sup>

특히 베트남의 대외 정책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중국, 동남아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같은 국가와 관계 정상화를 원하며 평화 공존의 원칙에 의해 모든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sup>78</sup>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북한도 베트남의 국제화 대외정책 중에 예외가 아니며 이는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를 ‘형제’적인 성격에서 다른 나라와 같이 실용주의 즉 보편적인 성격으로 바꾸게 하였다. 이 성격은 다음 시기에서 보다 잘 나타나므로 다음 시기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북한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세계로부터 고립된 상태에 빠져서 농공산품생산 외채고조 등 경제적 압박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이 개혁으로 나아가도록 독촉하는 힘으로서 사회주의 체제의 실패가 미치는 구조적 압박에 있다. 북한 경제 역시 1960년대 후반에 들어 침체로 이어지는

---

<sup>77</sup> 전상인. 1995. 「북한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 (한림대학교). pp.7-11

<sup>78</sup> Báo điện tử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베트남 공산당 전자 미디어). <http://dangcongsan.vn/tu-lieu-tham-khao-cuoc-thi-trac-nghiem-tim-hieu-90-nam-lich-su-ve-vang-cua-dang-cong-san-viet-nam/tu-lieu-cuoc-thi/nghi-quyet-dai-hoi-dai-bieu-toan-quoc-lan-thu-vi-cua-dang-543504.html>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sup>79</sup>.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붕괴한 이후인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자연 재해까지 겹친 북한은 한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며 1인당 GNP는 1990년 1,146달러에서 1998년에는 절반 떨어져 573달러에 불과하였다<sup>80</sup>.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 최고지도자들이 대응 정책들을 마련하였는데 베트남과 달리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의 권위를 유지 혹은 강화하는 측면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에서 수령 체제가 태동되고 확립되었던 것이다.<sup>81</sup> 북한의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명제로부터 형성되었으며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의 연설에서 주체의 확립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sup>82</sup>. 1990년대 북한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처지를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표현했다<sup>83</sup>. 그리고 한.소 수교, 한.중 수교, 한.베 수교가 이루어져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수록 북한은 더욱 극명하게

<sup>79</sup> Brun, Ellen and Jacques Hersh. 1976. *Socialist Korea: A case study i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Y: Monthly Review Press. pp. 21)

<sup>80</sup> 권만학. 2002. 「북한의 위기대응과 수령 체제의 변천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pp.257-258

<sup>81</sup> 모춘홍. 2016. 「북한의 위기대응과 수령 체제의 변천 분석」. 『통일부』 (한양 대학교). pp.23

<sup>82</sup> 모춘홍. 2016. 「북한의 위기대응과 수령 체제의 변천 분석」. 『통일부』 (한양 대학교). pp.26

<sup>83</sup>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1992. 1. 1),”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54.

입장을 드러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과감한 경제 개혁·개방의 추진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물결의 유입, 사회통제체제의 약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적 필요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으며<sup>84</sup> 이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1995년 이후 북한은 개방 노선을 채택하지 않고 핵개발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1985년 이후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국제 정치의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국제 협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특히 대립하였던 국가들도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이처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 공산국가들도 세기적인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지만 북한은 아직 개혁·개방을 외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북한과 베트남은 경제적 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대외정책에 의해 양국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베트남은 이 시기 북한을 보편적 실용주의적 관계로 여기기 시작하였다. 도이머이 정책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베트남의 대외 정책을 통해서 베트남의 대북 외교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베트남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으며 쿠바 등 공산국가에 공감을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이 시기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들을 계기로 급격히 냉각되며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연대의식이라는 끈은 약화되어 세계의 다른 나라처럼 보편적인 관계로 남아 있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

<sup>84</sup> 모춘홍. 2016. 「북한의 위기대응과 수령 체제의 변천 분석」. 『통일부』 (한양 대학교). pp.39



## (2) 한-베 외교 관계 수립

1975 년 이전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과병하면서 북베트남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남베트남과는 외교, 경제, 군사적 관계를 맺었다. 남베트남이 해방된 이후부터 한국과 관계는 단절된 상태였지만, 1980 년 초반부터 일부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과 비공식 채널을 통해 교역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시도하고자 했다<sup>85</sup>.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트남도 1986 년부터 도이머이 정책을 시도하면서 전세계의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92 년 12 월 22 일에 한국과 베트남은 국교 수립을 결정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수립은 개혁.개방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배신감을 줄 수 밖에 없었으며 가장 바라지 않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은 당시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의 국가인데 1950 년대부터 북한과 혈맹, 형제적인 베트남과 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베트남은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는 의사가 1990 년 이전부터 모색되었다. 즉 1986 년 도이머이 정책의 분위기 속에서 주변 국가의 경제적 봉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대외정책 특히 외교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베트남의 응웬꺼타익 (Nguyễn Cơ Thạch) 부수상겸 외무장관은 1989 년 04 월 28 일에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에 대해 전쟁을 수행했거나 적대관계에 있었던 나라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

<sup>85</sup> 윤대영. 2012. 「한-베 수교 20 주년에 즈음하여: 회고와 전망」. 전문가칼럼-20121228.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방콕에서 열린 ‘인도차이나 세미나’ 참석자 태국을 방문중이었던 타익 장관은 베트남이 현재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북한 인정 자체가 한국과의 경제 관계 증진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많은 한국회사들이 이미 베트남과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베트남은 이같은 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sup>86</sup> 즉 베트남은 이 시기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수립을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와는 별도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시기에 베트남은 북한과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데올로기라는 연대의식에서 벗어나 점차 보편적인 관계로 바뀌려려는 대외 정책의 양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방한한 베트남 하노이공대 호앙쑹엠 총장의 입장을 보아도 베트남의 당시 대외 정책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과거를 단교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면서 국제 정세에 발맞춰 어떤 나라든 과거는 잊지 않으나 덮어두고 미래를 도모하자 하였다. 또한 경제 발전은 정치이념과는 무관한 문제라며 북한-베트남 관계 역시 외교적 우호관계 이상은 아니며 두 나라의 교역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sup>87</sup>

한편 베트남은 1987 년부터 제정한 외국 투자 유치법에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투자를 환영하면서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간의 문제였으나 북한은 당시 베트남의 한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의사를 인식하면서 1990 년에 베트남이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국과

<sup>86</sup> 매일경제. “베트남, 韓國(한국)과 관계개선 희망” (검색일: 1989.04.29)

<sup>87</sup> 한겨레. "세계 화해·협력이 우리 입장- 방한 베트남 하노이공대 호앙쑹엠 총장" (검색일: 1991.11.03)

협상하려고 나섰을 때,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장은 베트남에 협상을 포기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이 거부하자 베트남 방문을 단축하고 즉시 북한으로 돌아왔었다고 베트남 특명저권대사인 쩡응찐득 (Đương Chính Thúc)대사가 밝혔다.<sup>88</sup> 이때부터 베트남-북한 관계는 중.월 전쟁에 이어서 또 다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2년 04월 18일 일본 유력지 아사히 조일신문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가 국교 수립에 관해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북한은 환영하지는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sup>89</sup>. 이와 함께 북한의 로동신문도 한국과 베트남의 국교 수립에 대한 보도는 협의에 들어간 단계부터 본격적인 수교의 시점까지 없었으며 조용한 태도로 지켜보았다. 심지어 베트남은 1993년 즉 베트남과 한국이 수교한지 1년이 되었을 때, 조선중앙년감에서 외교 관계 목록을 보면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중에 중국과 소련 다음으로 늘 3번째로 언급되었던 베트남이 이 해에 마지막으로 서술되었다. 이와 같이 양국 관계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불편함과 경계를 많이 겪었다고 할 수 있다.

### 3. 1994년~1999년: 지속적 불편한 관계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즉 사상적 동지관계와 북.베 혈맹관계를 이끌었던 북한과 베트남의 혁명 1세대들이

<sup>88</sup> Tô Lan Hương. “Đại sứ Dương Chính Thúc và kí ức về 2 thập kỉ gắn bó với Triều Tiên” ( Dương Chính Thúc 주북한 베트남 대사 20년간의 기억) <https://cafebiz.vn/nguyen-dai-su-vn-tai-binh-nhuong-toi-may-man-duoc-biet-mot-trieu-tien-39rat-khac39-giau-co-va-coi-mo-20180611141914906.chn>.

<sup>89</sup> 동아일보. “韓(한)-베트남 月内(월내)수교 日紙(일지)보도” (검색일: 1992.04.18)

사망하며 북베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갈 최고 지도자급 인사들의 역할이 점차 소멸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과 베트남은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가 소멸되기 마련이었다. 특히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양국 관계가 더욱더 침묵에 빠져들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 시기 두 나라 관계가 전개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 두 시기에 연대의식이라는 내부적 요인은 이 시기에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은 내적 요인을 베트남과 북한의 내부적 상황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내부적 상황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북한의 경우 주목할 만한 사건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1996~1999)에 북한의 남방외교정책을 내부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 1) 베트남과 북한의 상호방문 및 양국의 협력

<표10>: 베트남 인사의 방북 (1994~1999)

년도	방문 인사
1994 년	김일성의 서거에 조의방문
1997 년	베트남 외무장관

자료: 베트남 외교부, 조선중앙년감 (1994~1999년), 로동신문, 평양 베트남 대사관

<표11>: 북한 인사의 베트남 방문(1994~1999)

년도	방문 인사
1995 년	정부대표단
1996 년	정부무역대표단, 조선로동당대표단(베트남공산당 제 8 차 대회에 참가)
1997 년	부총리 방문

자료: 베트남 외교부, 조선중앙년감(1994~1999년), 로동신문, 평양 베트남 대사관

북한과 베트남의 표면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양국 인적 교류 및 협력 상황이 어떠했는지 고찰해보겠다. 먼저 양국 상호 방문 상황 즉 인사 교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다. <표10> 및 <표11>에서 반영되는 베트남과 북한의 상호 방문 기록에 의하면 1994년부터 양국의 분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상호 방문의 밀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양국 관계는 아직까지 완전히 완화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양국 인사 교류의 횟수가 매우 적었으며 주로 산하 기관, 그리고 민간 레벨에서 정기적, 또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표12>: 베트남의 대북 수입 및 수출 현황(1994~1999)

(단위: US\$백만)

년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수입	13,896	17,69	6,11	3,760	0,94	-
수출	0,04	0,19	0,17	3,13	0,03	4,3

자료: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 외교부, IMF, KOTRA

양국 관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한 후 우선 1994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기에 표면적으로는 양국간 우호가 지속되는 듯이 보였으나 서로 다른 정책노선으로 인하여 양국간 긴장이 아직 완화되지 못한 가능성이 컸다. 양국 교역 실적을 보면 1994, 1995, 1996년의 베트남의 대북 수입을 제외하고는 5,000천불을 초과한 실적이 없었으며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도 양국 교역량이 꾸준히 유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이전 시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2) 베트남의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북한 고난의 행군

이 시기는 이전의 시기와 유사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와 함께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1994-1999)에는 이 침묵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었다. 베트남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고립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므로 미국으로부터 봉쇄 상황을 해소시키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임무라고 전뜡겨 베트남은 외무부 차관은 인정하였으며 이때부터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sup>90</sup> 따라서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는 것에 이어 한국과 수교한 이후 베트남은 1995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자 북한과 우호관계도 형식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미-베 관계 정상화는 미국과 적대 관계를

---

<sup>90</sup> Lê Văn Quang. 2005. *Quan hệ Việt - Mỹ, thời kỳ sau chiến tranh lạnh(1990-2000)*. Hồ Chí Minh: 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Quốc gia Thành Phố HCM. pp.52 (Lê Văn Quang. 2005. 『베트남-미국 관계, 냉전 이후 (1990-2000)』. 호찌민: 호찌민 국립대학교 출판사. pp.52)

유지하고 있던 북한에게 또 다시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인 도이머이로 인해 정치적 경계가 심하였으며 이 시기에 들어서서도 양국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한편, 북한의 1994 년부터 강화된 북한의 남방외교정책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한의 남방외교 정책은 1994 년에 들어와 베트남과 아세안 국가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외교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을 베트남 등으로 파견하는 한편 베트남의 요인들을 초청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베트남이 1992 년에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994 년에 들어서 북한은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해왔으며 교차방문의 증가 등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문제는 베트남이 대북한교류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양국 무역 실적이 매우 미미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1994 년 이전에 양국 교역 규모가 미미한 것은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 시기의 교역 규모는 양국의 유명무실한 관계에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베트남이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쌀을 수출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당시 북한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쯔엉쨌툽 베트남 특명전권대사가 베트남 Tri Thuc Tre ( “젊은 지식인 ” ) 잡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은 다른 나라의 물품을 구입하고 싶어하는데 부채를 갚을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점차 거래가 점점 줄어들었다. 베트남도 1990 년대 초 북한에 엄청난 양의 쌀을 수출하였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아직 그 부채를 지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기 양국은 전통적으로 기존의 패턴에서도 나타났듯이

교환 방문 외교를 통해 상호 친선관계를 추진하며 무역 실적을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만 이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양국의 실질적인 교환이 없지는 않았다. 최광 북한 인민무력부장서리가 1994년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하노이에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고 베트남 소식통들이 밝혔다. 최를 단장으로 한 인민군 고위간부 14명으로 구성된 이 군사대표단은 90년대 초 북한과 베트남간의 관계가 긴밀해진 이후 베트남을 방문한 최고위 군사대표단으로 양국 군사관계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sup>91</sup> 북한은 베트남에 총 부품과 탄약을 공급하는 대신 베트남으로부터 쌀을 수입하는 바터무역에 합의했다고 일지사 통신이 북경발로 보도하였다.<sup>92</sup> 따라서 1995년부터 북한과 베트남간에 쌀과 무기 교환을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1995년 10월에 베트남은 가격 협상을 마치고 11월부터 월 1만톤씩 연 10만톤의 쌀을 북한에 수년간 수출하고 북한은 쌀수입금액 대신 베트남에 북한산 시멘트와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한국 언론에서 밝혔다.<sup>93</sup> 이 시기는 특히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시기였으며 베트남 외교부 자료와 한국 언론을 통해서 베트남은 북한에 쌀 원조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 타개를 위해 1995년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대만 등 7개국에 최소한 3백만톤 이상에 달하는 곡물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방콕의 북한관련

<sup>91</sup> 동아일보. “北(북) 최광(최광) 베트남방문” (검색일: 1994.11.19)

<sup>92</sup> 매일경제. “北(북), 베트남에 銃彈(총탄)공급 쌀수입 바터무역 합의” (검색일: 1994.11.27)

<sup>93</sup> 매일경제. “北(북) 베트남쌀 수입 빠르면 내달부터” (검색일: 1995.10.19)



소식통이 말했다.<sup>94</sup> 따라서 1996년 3월에 베트남에서 쌀 1천20t(40만달러 상당)을 북한 진남포를 통해 전달했다.<sup>95</sup> 그러나 베트남은 1996년에 북한으로부터 쌀 값에 쌀을 팔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관영 베트남 뉴스지가 보도하였다.<sup>96</sup> 이에 대해서 관반카이 부총리는 베트남을 방문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이성태위원장으로부터 정부가 보조하는 가격으로 쌀을 수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자신은 베트남이 쌀을 팔 수는 있지만 쌀수출이 여러 회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베트남정부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1997년에 북한에게 쌀 10만톤<sup>97</sup>을 판매했으며 북한에 어린이용 양곡으로 쌀 천톤의 무상제공<sup>98</sup>을 해줬다. 이후 베트남 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양국 무역 관계가 2007년까지 거의 끊어져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하였다. 이후 1999년에 베트남은 북한으로부터 잠수함 2척<sup>99</sup>과 미사일 1억달러 상당<sup>100</sup>을 구입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실질적 경제교류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베트남은 또한 북한의

<sup>94</sup> 경향신문. “쌀등 300 만 t 이상 北(북),7 개국에 요청” (검색일: 1995.12.28)

<sup>95</sup> 한겨레. “인터뷰/북한 수해현장 다녀온 세계교회협의회 박경서박사 - 쌀 비축량 거의바닥 올 수확기 고비” (검색일: 1996.03.12)

<sup>96</sup> 경향신문. “쌀 헐값에 팔아달라- 베트남,北(북)요청 거절” (검색일: 1996.04.12)

<sup>97</sup> 경향신문. “中(중),對北(대북)식량지원 약속 5년간 매년 50 만톤씩” (검색일: 1997.01.16)

<sup>98</sup> 매일경제. “베트남,북한에 쌀무상지원 1천톤규모…추가지원 약속” (검색일: 1997.05.14)

<sup>99</sup> 경향신문. “베트남 北(북)잠수함 2척 구입” (검색일: 1999.02.01)

<sup>100</sup> 동아일보. “北(북) 미사일 1억달러상당 베트남 판매” (검색일: 1999.04.16)

폐쇄적인 경제체제와 북한이 핵위기에서 보여준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는 여전히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sup>101</sup>

#### 4. 2000년~2011년: 안정적 관계 회복, 적극적

##### 우호협력관계 재개

본 논문은 이 시기 두 나라 관계가 전개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북한의 내부적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한국의 정상회담과 북한의 ARF (Asean Regional Forum) 가입을 내부적 요인으로 간주한다.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북한과 아세안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전술하였듯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과 아세안의 관계에 있어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 중반 동남아 국가들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김정일 체제 등장 직후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타개를 위한 전방위 외교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전 시기부터 남방외교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관계에 있어 특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북한에게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2000년 ARF가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시기에 연약한 전통적인 관계를 토대로 정치적 경계, 실망, 침묵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이 시기(2000~2011) 들어서면서 양국은 많은

---

<sup>101</sup> 홍규덕. 1995. 「북한의 대동남아 정책 남방외교의 평가」.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34(2). pp.48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 안정적인 즉 관계 회복과 전통적인 우호관계 재개의 단계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13>: 베트남 인사의 방북 (2000~2011)

년도	방문 인사
2000 년	베트남 외무성 상임부상 일행 (50 주년 관계 설정 기념)
2001 년	베트남 음악가 일행
2002 년	웬남 주식 전 득 르영
2007 년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2009 년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선전교육일꾼 대표단

자료: 베트남 외교부, 조선중앙년감 (2000~2011년), 로동신문, 평양 베트남 대사관

<표14>: 북한 인사의 베트남 방문(2000~2011)

년도	방문 인사
2000 년	외무장관, 예술단, 선수단
2001 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조선로동당 대표단
2002 년	김정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2003 년	조선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
2007 년	내각 총리 김영일
2008 년	박일준 외무장관

자료: 베트남 외교부, 조선중앙년감(2000~2011년), 로동신문, 평양 베트남 대사관

북한과 베트남의 표면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양국 인적 교류 및 협력 상황이 어떠했는지 고찰해보겠다. <표12> 및 <표13>에서 반영되는 베트남과 북한의 상호 방문 기록에 의하면 2000년 양국의 분위기가 풀어져

상호 방문의 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양국 정상급 방문이 상당히 있었으며 가장 높은 급의 방문은 바로 2002년 베트남 주석의 방북, 2007년 북한 김영일 총리의 베트남 방문 등으로 양국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선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나머지 양국 인사 교류는 산하 기관, 그리고 민간 레벨에서 정기적, 또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과 베트남의 상호 방문 기록 외에도 양국이 서로 인사 교류한 기록도 있는데 양국 우호 관계 기념일, 인민군의 날, 양국 독립 기념일, 노동당 설립 기념일 등과 같은 양국의 전통적인 기념일을 맞이하여 군중집회, 양국 역사 다큐멘터리 상영을 하며, 서로 축하해주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였다. 예를 들자면 2004년 베트남 덴벤푸전투 승리 50주년에 즈음하여 북한 주재 베트남대사가 주최한 대사관 친선모임을 개최하였고<sup>102</sup>, 2009년에 베트남 국경절에 즈음하여 북한은 베트남 대사관 구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을 조선월남친선 평양방직공장에서 진행하였다. 또는 2010년 북한과 베트남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60주년에 즈음하여 베트남의 정당, 정부 성, 단체, 기관들이 북한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 주었다.

**<표15> 베트남 정부의 대북 쌀 원조 현황(2000~2010)**

(단위:톤)

년도	2000	2001	2002	2005	2007	2009	2010
원조	1000	5000	5000	1000	2000	3000	500

자료: 베트남 외교부

<sup>102</sup> 로동신문 2004년 5월 6일

고난의 행군 시기가 지난 다음인 2000년대에 상황이 변한 것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베트남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지속하고 있었다. 베트남의 대북 식량 원조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쌀 1천 톤, 2001년 쌀 5천 톤, 2002년 쌀 5천 톤, 2005년 쌀 1천 톤과 고무 라텍스 5톤, 2007년 긴급지원액 5만 달러와 쌀 2천 톤, 2009년 쌀 3천 톤, 2010년 쌀 5백 톤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양국관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양국 간 실질적 교류는 쌀과 무기 교류 밖에 없었으며 북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국 간 실질적 교류는 여러 도전과 장애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과 베트남의 서로에 대한 답답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양국의 적극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양국 관계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말하자면 2007년 이후 베트남과 북한은 정치외교, 공연, 체육뿐만 아니라 경제무역에 이르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전의 시기에 비해서 상호 방문의 횟수가 늘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양국 관계가 상당히 활성화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재개된 것은 2000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에 의해 가능하였다. 북한이 아세안과 제도적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0년 ARF가입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ARF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세안회원국은 남북 관계개선을 환영했으며 ARF를 통해 제도적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했다.<sup>103</sup> 북한과 아세안의 이 제도적 협력이 형성되어 이때부터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도 이전 시기보다 활성화되었으며 양국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시켰다. 이외에도 북한은 2010년 아세안과 우호협력조약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을 체결했다. TAC는 아세안 규범의 핵심으로 내정불간섭 원칙과 무력의 불사용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을 담고 있다. 지역주의 확대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뒷받침하는 조약이다. 2005년 출범한 동아시아정상회의 참가국에 TAC서명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TAC ‘허브 앤 스포크’ (hub and spoke)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성격을 규정하자면 북한과 베트남은 북한과 아세안의 제도적 협력을 통하여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 5. 2012- 현재: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연대의식으로부터 탈출하여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시기 양국 전통적인 우호 협력관계가 재확인되고 기존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연대의식으로부터 탈출하고 국가 간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징후들이 이전 시기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시기 두 나라 관계가 전개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sup>103</sup> 김형중. 2018. 「아세안-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 『Review Diverse Asia』 (서울대아시아연구소). Vol.1 No.3. pp.3

이 시기 북한의 경우 주목할 만한 요인은 북핵 개발로 간주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개혁개방의 성과로 간주할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태도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시기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문제들을 가지고 태도와 입장을 표방하는 데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예전처럼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점차 국제사회의 입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입장에 늘 섰던 1950, 1960년대 혈맹인 베트남은 현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는 국가로서 북한자체보다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해 관심을 보다 더 기울이고 있다. 북·베 관계 전망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에서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점차 각광을 받아서 베트남을 롤모델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베 관계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연대의식으로부터 탈출하여 현대 시대의 국제협력 분위기 속에서 국가간 일반적 관계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현대 시대 양국관계는 전개되며 회복되고 보다 밝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 베트남과 북한의 상호방문 및 양국의 협력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2011년에 들어서는 최고위층 인사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이어져 양국간 우호관계가 다시 공고해지며 방문 횟수도 늘어났다.

<표16>: 베트남 인사의 방북 (2012~2019)

년도	방문 인사
2012 년	베트남정부 문화대표단, 베트남신문 년전 대표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외무성 대표단, 베트남외교단복무총국 친선대표단, 베트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대표단
2013 년	베트남 외교전략연구소 대표단, 베트남공산당 대표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2014 년	베트남인민군 총참모부 군사훈련국 대표단
2015 년	베트남인민회의 대표단, 베트남외무성 대표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공업 및 상업상 대표단, 베트남공산당 대표단, 베트남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
2018 년	베트남사회과학원 대표단
2019 년	부총리겸 외무부장관

자료: 베트남 외교부, 조선중앙년감 (2012~2019년), 로동신문, 평양 베트남 대사관

<표17>: 북한 인사의 베트남 방문(2012~2019)

년도	방문 인사
2012 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김일성종합대학 대표단, 상임비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표단,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표단, 품질 감독위원회 대표단, 조선직업 총동맹 대표단, 조선로동당 대표단, 조선월남친선협회 대표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2013 년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꾼 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훈장, 베트남조선친선유치원 수여
2014 년	친선대표단, 정부경제대표단, 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외무상,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
2015 년	최고검찰소 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 대표단, 정부 경제대표단, 조선 직업총동맹 대표단, 조선월남친선협회 대표단,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 대표단
2016 년	조선로동당 대표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대표단,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
2018 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대표단
2019 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료: 베트남 외교부, 조선중앙년감(2012~2019년), 로동신문, 평양 베트남 대사관



실질적 협력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전보다 활발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모습을 양국 상호 방문 기록 <표16>과 <표17>로 확인이 가능하다.

<표18>: 베트남의 대북 수입 및 수출 현황(2012~2019)

(단위:US\$백만)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	-	-	8	5,47	-	-	-
수출	15	12,4	8	6,13	2,99	7,322	0,497

자료: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 외교부, IMF, KOTRA

양국의 무역 실적을 보면 13 백만불에 달하는 실적이 있었으며 이전 시기보다 교역량이 증가하여 실질적 경제 협력 분위기가 활발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베트남의 2011 년 대북 수출 주요 품목은 카사바, 커피, 수산물, 각종 섬유, 원사, 목재, 쌀 등이 있으며 2011 년에 카사바와 커피의 수출량이 5,055 천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04</sup> 베트남의 대북 수입 품목은 2011 년에 주로 기계, 설비, 용구 및 부속 그리고 동, 철강, 원단 등으로 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 북한의 대베트남 외교는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 베트남이 북한에게 쌀 원조를 꾸준히 해왔으므로 양국 관계가 전진되는 데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할

<sup>104</sup> KOTRA 자료 (2012.07.11) . “2012 년 상반기 북한과 베트남 주요 이슈에 따른 교류 현황”

수 있다. 이는 또한 양국 관계가 더욱 실질적 외교로 나가고 있는 징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 규모가 미미한데다 양국간 교역이 대부분 중국을 거치고 있어 정확한 통계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2011 년부터 양국 관계에는 그나마 진전을 보였으며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해졌다. 현재 두 나라는 점차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베트남 개혁개방 모델 및 양국관계 전망

앞서 서술했듯, 본 논문은 이 부분에서 양국 관계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베트남의 내부적 상황 즉 개혁개방의 성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현재 베트남은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 성과를 이루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성공함으로써 북한이 배우고 싶은 ‘롤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의 내부 상황인 개혁개방 성과로 인해 양국 관계에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베트남은 ‘혈맹’에서부터 ‘사회주의 배신의 국가’로, 다시 ‘배워야 할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1994년에 북한 노동당의 황장엽비서가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베트남의 경제사정을 둘러보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한 바가 있지만 두 나라의 경제노선에 대해 비교하지는 않았다.<sup>105</sup> 그러나 최근에 들어 북한은 여러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개혁개방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자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다시 끌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단 이후

---

<sup>105</sup> 동아일보, "베트남 외무장관 일문일답 - 개발경험-자원 보완 기대" (검색일: 1994.05.22)

70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고, 전세계에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이 공동 선언을 통해서 65년간 이어져왔던 휴전 중인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재구축하기로 남북이 의사를 표명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일간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고, 이후에 베트남 정부를 방문하여 회의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한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는 호의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역사적인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이다.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만남에서 북한은 베트남 개혁개방에 대한 의사를 표방하기도 하였다. 이는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북한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은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베트남 내부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실현된 정책인데 이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분야에서 토지법이 공포되었으며 자유주의적 정책이 도입된 이후 베트남의 농업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2011년 쌀 생산량은 1985년에 비해 2.7배 증가하였으며 쌀 수출도 세계 2위로 도약하였다. 경제분야에서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독립채산제로 국영기업들이 자기자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경영하게 된 것이다. 국제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잇따랐다. 그리고 민생분야에서 빈곤층 및 영아 사망률은 현저히 개선되었다.<sup>106</sup>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성과를 지켜보고 있는 북한은 김정은이 베트남을 방문하기 전에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의 개혁개방 현황을 조사해

---

<sup>106</sup> 남궁영, 양일국. 2015. 「중국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북한」.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pp.117-121

보았다는 베트남 보도가 있었다. 베트남 중앙 경제관리연구소 이사는 2019년에 베트남을 방문한 북한 연구대표단을 만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북한 대표단이 주목한 활동 중 하나는 산업, 농업 및 통신 분야의 베트남 경제 모델 참관 활동이다. 김정은이 베트남을 방문하기 전에 경제 개혁개방 경험을 연구하려고 베트남에 온 북한대표들이 많았다. 차관급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경제 개혁개방의 성과를 보고할 때마다 약 16~18명의 북한 대표단이 큰 관심을 보여주었고 많은 질문을 했다. 북한이 관심을 갖는 주제는 베트남의 개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민간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 미국과 원한을 접는 방법 등이다. 베트남의 경험을 들으면서 북한 측에서 민간 경제 개발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았는지, 그 개발에 많은 논쟁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물었다. 그들이 항상 묻는 문제 중 하나는 국가에서 많은 희생을 해야 하였는지 여부이다. 어떻게 미국과 화해 할 수 있는가? 베트남은 과거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베트남은 미래를 향해 협력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여러 국가와의 경제 협력 관계를 맺으므로 어떤 나라의 경제와도 독립적이어야 한다.”<sup>107</sup>

베트남 중앙 경제관리연구소 이사는 북한의 연구자들이 베트남의 개혁개방 경험에 대해 진지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북한 사람들이 베트남의 개혁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에게 역사성이 부각되는 베트남은 과거의

---

<sup>107</sup> Hiếu Công. “Triều Tiên đã đến khảo sát kinh tế Việt Nam trước chuyến đi của Kim Jong Un” ( ‘김정은의 베트남 방문 이전에는 북조선이 베트남 경제 조사 하러 왔다’ ) (검색일: 2019.03.05) <https://news.zing.vn/trieu-tien-da-den-khao-sat-kinh-te-vn-truocchuyen-di-cua-kim-jong-un-post922412.html>

혈맹이자 북한의 경제모델로 그 이미지를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 즉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협력하는 양상은 미래 협력이 보다 밀접해지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한편, 양국 협력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들자면 북한의 탈북자와 핵개발 이슈는 그 대표적인 문제이다.

앞서 말했듯 북핵문제는 베트남과 북한이 관계를 한발 더 나갈 수 있는데 있어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혈맹 관계를 맺었던 시기에 베트남은 북한을 늘 지지하였으며 북한의 북핵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1994년에 북한의 핵개발 노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sup>108</sup> 특히 Nguyen Dy Nien 전 외무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그 입장을 알 수 있다.

“ASEAN+3 회의에서 지도자들은 북핵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면 한반도의 상황과 지역 경제, 정치 및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남북 정상 회담을 환영하며 양국 관계의 최근 진전을 환영한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긍정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 핵무기와 관련하여 베트남은 군축 해제를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철저한 군축 해제 과정을 지지한다. 원자력은 평화로운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인간 삶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sup>109</sup>

---

<sup>108</sup> 동아일보. "베트남도 北核(북핵)반대" (검색일: 1994.05.11)

<sup>109</sup> 베트남 외교부 자료 (2002.11.18) 참조. “Bộ trưởng Ngoại giao Nguyễn Dy Niên trả lời phỏng vấn Đoàn Câu lạc bộ báo chí Nhật Bản -8/11/2002” (Nguyen Dy Nien 외무 장관은 일본 언론 협회와의 인터뷰-2002 년 11 월 8 일)

이에 따라서 북한과 베트남과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는 한국은 같은 한반도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은 베트남의 입장에서 주목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핵문제를 반대하고 있는 국제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베트남은 개혁개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개혁개방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베트남에게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보다 발전해나가는 데 걸림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즉 양국이 가려고 하는 노선이 갈려서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베트남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sup>110</sup> 무엇보다도 현재로서 베트남 언론에서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 ‘조선반도’, ‘남북관계’, ‘북한의 핵문제’, ‘남북통일’ 이라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후부터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베트남은 북한을 더 이상 북한 자체로만은 아닌 ‘한반도 평화’, ‘한국과의 통일’, ‘한국과의 관계’ 라는 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점차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 양국의 협력이 보다 깊어지기 위해서는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

[http://www.mofahcm.gov.vn/vi/mofa/cs\\_doingoai/pbld/ns04081814260719](http://www.mofahcm.gov.vn/vi/mofa/cs_doingoai/pbld/ns04081814260719)

<sup>110</sup> 도미엔. 2019. 「베트남 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pp.199

## IV. 결론

### 1.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네 가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베트남과 북한의 대공산주의국가 정책들을 분석함으로써 양국 서로간의 외교 태도를 살펴보는 데 그 첫 목적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두번째 목적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시기에 따라 북.베 관계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베트남과 북한 관계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리고 각 시기 베트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는데 또 다른 목적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베트남이 서로 간 바라보는 역할 즉 양국 관계 전망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1차 자료, 2차 자료들을 이용하여 국제관계 이론 즉 연계이론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한 국가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인 ①국가의 외부환경, ②국가의 사회적 환경, ③정부형태, ④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자리에 따른 역할, ⑤외교정책 결정 엘리트 등 즉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양국의 내부적 요인을 살펴보자면 북한의 경우, 내부적 요인은 반제국주의라는 공산국가들의 연대의식, 그리고 북한의 내부 상황이다. 내부 상황은 구체적으로 북한 내부 권력 강화 의도,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전개된 북한의 남방외교정책 그리고 북핵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내부적 요인으로서 베트남과 북한의 공통점인 사회주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외교관계의 성격을 밝히고자 했다. 두번째 내부적 요인은 베트남의 내부 상황인 개혁개방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나라의 외교 정책이다.

외부적 요인은 국제체제, 주변국들의 정책동향 등으로 간주하였다. 그중에 중국, 미국, 소련(1991년 이후 러시아) 등과 같은 강대국 변수는 양국 관계 전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들이다. 북한은 소련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해체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생겨났다. 그리고 중소 갈등 심화가 정책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국제정치의 배경에서 1986년 쇄신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 갈등 속에서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사회주의 붕괴의 분위기 속에서도 정책 변화를 많이 이루었다. 본 논문은 양국 관계의 성격을 밝히는 과정에 이러한 외적 국제 정세에 대해 하나씩 조명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베트남과 북한의 대공산주의국가 정책들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서로간의 외교 태도를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경우 전체적인 대공산주의국가 정책의 흐름을 보면 베트남 프랑스 반식민 투쟁 시기, 대미항쟁 시기, 통일 이후 시기, 냉전 완화 시기로 구분하여 파악이 가능하다. 프랑스 반식민 투쟁 시기에는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 강대국과 협력을 강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지지도 되도록 활용하였다. 대미항쟁 시기에는 인도차이나의 지지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의 도움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소 갈등에 의해서 이 양국 간에 관계를 조절하는 데 여러 도전을 받았다. 셋째, 통일 이후 시기인데 소련과 기타 공산주의국가와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중국과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었다. 캄보디아 정부와도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와도 관계를 넓히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냉전 완화 시기는 ‘개방을



위한 시기' 라고 부를 정도로 개방 노선을 지원해주는 외교 정책들이 펼쳐졌음에 따라 중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라든가, 국제 화합 추구를 위한 다방면적인 정책,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 여러 개혁개방 정책을 시도하였다. 1986년 쇄신 정책이 마련되었다가 1996년 8월에 개최된 제 8회 당대회에서 예전처럼 소련, 중국, 북한, 쿠바, 캄보디아, 라오스 등 사회주의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 '국제사회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는 청책들을 모든 국가에게 펼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베트남은 북한과 공산주의국가 연대의식이라는 틀에서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북한과 베트남도 보편적인 국가들 간의 관계로 즉 실리외교 관계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눈 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1992년에 북한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수교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양국 관계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베트남은 북한을 더 이상 북한 자체만이 아닌 '한반도 평화', '한국과의 통일', '한국과의 관계' 라는 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점차 생기게 되었다.

북한의 대공산주의국가 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크게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는 양상과 함께 마스레닌주의에서 탈출한 양상을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은 다음에 개인숭배사상을 설정하였으며, 소련의 마스-레닌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친중 노선을 택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1966년부터 1971년까지 조중 친선을 중단시키면서 조-중 관계가 약화되었다. 이때 소련과 외교 관계도 그리 개선되지 않았다. 셋째, 1970년대에 들어들서면, 북한은 중국과 관계를 다시

개선시켰으나 예전보다 신중한 친중 노선을 택하였다. 1972년 북한의 헌법에서 아직 마스 레닌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의 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하겠다고 하였으므로 1970년대 북한은 진영외교에서 벗어나 중립국과 제3세계권에 대한 실리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보였다. 넷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스레닌주의보다 주체사상 원칙이 먼저 제기되었다. 한편, 중국의 덩소평이 취임하면서부터 중국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1980년대 친중보다 친소 정책으로 외교 정책을 변경하였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번째와 세번째 연구 목적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시기에 따라 북.베 관계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베트남과 북한 관계의 모습을 제시하고 성격을 규명하면서 그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작동하는 요소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연구 목적들을 달성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양국 간 일어난 사건들을 5가지 특정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필자는 첫번째 시기는 1975년 ~1978년- ‘혈맹에서 전통적인 관계 유지 수준으로 전락’, 두번째 시기는 1979년~1993년- ‘실체적 관계 악화, 도이머이로 인한 정치적 경계, 경제 교역량 증가’, 세번째 시기는 1994년~1999년- ‘지속적 불편한 관계’, 네번째 시기는 2000년~2011년- ‘안정적 관계 회복, 적극적 우호협력관계 재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현재-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연대의식으로부터 탈출하여 실용주의 노선으로’ 으로 각각 칭하였다. 각 시기에 양국 상호 방문 역사 기록, 여러

측면에서의 협력을 서술함과 동시에 내부적 요인과 중국, 소련, 미국, 한국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적 변수들을 제시하여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였다. 1975년~1978년대는 베트남이 통일을 이룬 다음에 1975년 이전 시기와 다른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북한은 1960년대말부터 북한과 베트남의 공동반미전선에 대한 견해가 점차 상이해지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 관계가 눈에 띄게 소원해졌으며 특히 북한의 대베트남 경제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양국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끈이 아직 존재하였기 때문에 양국 간에 일반적인 분야에서 대부분 인사교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협력 즉 경제 원조가 1974년부터 크게 줄어들었으며, 무역까지 그 교류량이 매우 적었다는 것을 보면 양국 관계는 이 시기에 혈맹 수준에서 전통적인 관계 유지 수준으로 전략하는 성격을 띠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평화통일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북한은 베트남의 무력 통일 방식을 못 받아들여 베트남의 통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 베트남을 연결할 수 있는 끈은 바로 북한은 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의 효과를 이용하여 내부 정치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의식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양국의 관계는 북한의 내부 권력 강화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을 베트남 통일 이후 한국인들의 송환문제로 간주하여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밝혔다.

1979~1993년대는 주로 사회주의 몰락, 소련의 붕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특히 1979년 이후부터 북한과 베트남은 정치적 경계가 존재하였으며 국익에 따라 전통적

관계 유지와 단절을 반복하는 관계로 탈냉전 시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었다. 전쟁 이후에 베트남 정부는 세계 정세에 의해 북한이 가고자 하는 진로와 다른 개혁개방 정책을 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양국 간에 정치적 경계가 높아지며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불만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양국 관계는 명목적 전통적 관계의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제적으로 관계가 많이 소원해지고 악화되는 성격을 띠었다. 혈맹이었던 북한과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명목상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1975년 베트남 통일 시기를 거쳐 이 시기까지도 무역 현황을 개선하지 못하였던 원인은 내부적 요인인 베트남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도 작동하였으나 이를 둘러싼 외부적 요인인 중·월 전쟁, 한·베 수교, 미·베 국교 정상화에 의해 관계가 악화되었다. 1979년부터의 시기는 최악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이때 베트남은 대사급에서 공사급으로 전락시켰다고 할 수 있다. 중·월 전쟁,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북한·베트남 관계는 많이 나빠졌으며 심지어 최악의 상태로 변화하였다.

1994년~1999년- ‘지속적 불편한 관계’ 시기에 들어서면서 양국 관계에 있어 이전 시기와 유사한 분위기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와 북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양국은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표면적으로는 양국간 우호가 지속되는 듯이 보였으나 서로 다른 정책노선으로 인하여 양국간 긴장이 아직 완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즉 사상적 동지관계와 북·베 혈맹관계를 이끌었던 북한과 베트남의 혁명 1세대들이 사망하며 북베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갈 최고

지도자급 인사들의 역할이 점차 소멸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 시기에 북.베 관계 전개를 북한의 남방외교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1996~1999)에 북.베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북한은 1994년부터 강화된 남방외교정책을 펼쳐서 베트남과 아세안 국가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외교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베트남이 대북한 교류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양국 무역 실적이 매우 미미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균형외교를 취하겠다는 정치적 고려의 반영일 뿐 북한과의 실질적 경제교류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체제와 북한 핵위기에서 보여준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는 여전히 북한의 동남아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베트남이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쌀을 수출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또 하나의 원인이 있었다. 당시 북한은 다른 나라의 물품을 구입하고 싶었으나 부채를 갚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베트남 측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 시기 양국의 실질적인 교환이 없지는 않았다. 1995년부터 북한과 베트남 간에 쌀과 무기 교환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2000년~2011년- ‘안정적 관계 회복, 적극적 우호협력 관계 재개’ 시기에 들어서면서 양국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 안정적인 즉 관계 회복과 전통적인 우호관계 재개의 단계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베 관계도 북한.아세안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 시기에 북한이 아세안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의사를 북한 내부적 요인으로 간주하여 북한.아세안 협력 관계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현재에 들어서면서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2011년에 들어서는 최고위층 인사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이어져 양국간 우호관계가 다시 공고해지며 방문 횟수도 늘어났다. 실질적 협력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전보다 활발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양국 전통적인 우호 협력관계가 재확인되고 기존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연대의식으로부터 탈출하여 국가 간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징후들이 이전 시기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시기에 베트남의 개혁개방 성과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태도를 내외적 요인으로 간주하여 살펴보았다. 2011년 이후에 들어서야 두 나라의 분위기가 완화되어서 상호 방문 및 인적 교류 활동의 수와 양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최고위층 인사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이어져 양국간 우호관계가 다시 공고해지면서 실질적 협력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전보다 활발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의 대베트남 외교는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고 북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보다 밝은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연구 목적은 북한과 베트남은 서로 간 바라보는 역할 즉 양국 관계 전망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양국 관계는 추후 어떠한 이해 관계 속에서 계속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첫째, 북한의 핵.마사일 도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태도에 의해 전개될 베트남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여 양국 관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고 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개혁개방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베트남에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보다 발전해나가는 데 걸림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즉 양국이 가고자 하는 노선이 갈려서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베트남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로서는 베트남 언론에서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 ‘조선반도’, ‘남북관계’, ‘북한의 핵문제’, ‘남북통일’이라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후부터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베트남은 북한을 더 이상 북한 자체만이 아닌 ‘한반도 평화’, ‘한국과의 통일’, ‘한국과의 관계’라는 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점차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 양국의 협력이 보다 깊어지기 위해서는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점차 각광을 받아서 베트남을 롤모델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베 관계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연대의식으로부터 탈출하여 현대 시대의 국제협력 분위기 속에서 국가 간 일반적 관계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현대 시대 양국 관계는 전개되며 회복되고 보다 밝은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1975년~현재 북.베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성쇠고락(ups and downs)이 나타났다. 첫 번째 단계는 1975년부터 1978년까지로 북한은 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활용하여 내부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베트남과 전통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이전 시기에 비해서 연대의식이 많이 소원해졌으나 관계를 유지할 만한 끈은 존재하였기 때문에 양국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979년~1993년, 1994년~1999년에는 양국 관계가 최악과 정치적 경계의 관계로 전락되었으며 양국 사이에 침묵의 기간들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2000년~2011년, 2012년~현재, 양국은 관계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북한과 베트남은 이전 시기보다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양국 관계의 흐름이 보였다.

## 2. 연구의 의미 및 한계점

본 논문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외무부 자료, 베트남 인민 신문, 한국 외교부 자료,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중앙연감, 그리고 2차 자료들 등을 활용하여 1975~현재까지 “북한-베트남 외교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흔히 동맹이라고 알려진 베트남과 북한의 1975년 이전 시기와 달리 양국은 각종 성쇠고락과 변화를 거쳐서 관계를 전개하였다는 답을 찾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북한과 북베트남의 혈맹 시기(1950년대~1975년)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과 북베트남의 외교관계의 전개와 특징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과 북베트남의 외교 관계의 굴곡의 시기 즉 1975년 이후에 두 나라의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음과 동시에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가 관심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연구 주제로 활발하게 제시되지 않은 1975년 이후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를



두고 그 성격을 어느 정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총괄적인 관점을 제공하며 추후 연구들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본 논문은 양국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부재를 극복하고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주었지만 아쉽게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선 긴 시기 동안에 대한 두 나라의 외교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긴 시간일수록 각 시기의 성격에 대한 특징을 평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 작업이 필요하나 본 연구는 북한과 베트남 정부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양국 무역 현황에 대한 자료는 베트남과 북한이 IMF로 제출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양국 데이터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양국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북한과 베트남은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교류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확한 무역 교류량에 대한 자료를 찾기 힘들다. 이에 따라서 연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참고문헌

### 1. 국어자료

#### ❖ 학술지

- 강성윤. 2001. 「조선로동당 창건사에 대한 역사적 재고찰」. 『통일문제연구』. 15권1호.pp. 51-54
- 기광서. 2006.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와 중.소 군대의 참전 문제-한국전 발발 전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pp.89-96
- 김명섭, 최정호. 2008.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의 원인에 관한 재고찰」.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pp.145
- 김태운. 2016. 「북한의 한반도 주변 대4강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 『과주한국학술 정보』. pp.156
- 김석수. 2017. 「미중 갈등 속 베트남의 대외정책과 함의」. 『지역외교』. pp. 11
- 김창순. 1989. 「조선로동당의 창당 내막」. 『북한연구소』. pp.38-39
- 김학민. 2015. 남북 통일정책의 특성 비교: 해방이후 이승만 . 김일성의 ‘자주와 국가’ 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8권 1호. pp.40
- 권만학. 2002. 「북한의 위기 대응과 수령 체제의 변천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pp.257-258
- 권속도. 2009.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1976~1990년대」. 『대한정치학회보』 (영남대학교). pp.101~104
- 남궁영, 양일국. 2015. 「중국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북한」.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pp.117-121

- 도미엔. 2014.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pp.105
- 도미엔. 2019. 「베트남 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pp.11-47
- 모춘홍. 2016. 「북한의 위기대응과 수령 체제의 변천 분석」. 『통일부』 (한양 대학교). pp.23
- 문미라. 2017.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연변-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관계의 강화」. 『동북아역사논총』. pp.262
- 오수열. 2003. 「북·중관계의 변화와 남북한관계에 대한 영향」. 『동북아역사논총』. pp.191-195
- 유호열. 2008. 「북한외교정책의 결정구조와 과정」. 『국제정치논총』. 34집 2호. pp.119
- 윤대영. 2012. 「한-베 수교 20주년에 즈음하여: 회고와 전망」. 전문가칼럼-20121228.
- 이신화. 2010. 「동북아 주요 국가의 탈북자 정책 재외 탈북자 문제와 대량 탈북 가능성을 중심으로」.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pp.140
- 이효원. 2005.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3호. pp. 255
- 임 방 순 · 한 마크 만균. 2016. 「중,소 분쟁 격화기 중,소의 대북한 원조경쟁과 북한의 자주노선: 1961~1967」. 『한국공공사회연구소』 (중앙대학교). pp.53

- 장덕준. 2014. 「최근 북러관계의 변화: 현황, 동인,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러시아 연구소』 (서울대학교). pp. 272-303
- 전상인. 1995. 「북한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 (한림대학교). pp.7-11
- 최명해. 2009.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pp.136
- 표도르 쟈르치즈스키. 2018. 「중·소 분쟁과 북한의 외교전략」. 『북한연구소』. pp. 126-131
- 한정숙. 2011. 「소련 해체 후 러시아, 동유럽 역사 재조명: 소련의 해체, 클리오의 새로운 모습 - 현실사회주의 몰락 후 러시아 역사학의 동향」. 『인문대학』 (서울대학교). pp.14
- 홍규덕. 1995. 「북한의 대동남아 정책 남방외교의 평가」.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34(2). pp.47
- 홍은정. 「2018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 지속과 변화의 동학 -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내용 분석을 통해서」. 『인문사회』. 9권3호. pp.1254.
- 홍현익. 1996. 「소비에트 연방체제 붕괴의 원인」. 『세종연구소』 (고려대학교). pp.209

## ❖ 책

- 김성주. 2006. 『외교정책 결정 과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 연구: 민주화와 외교정책의 상관관계』.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p. 19
- 박태균. 2015. 「베트남 전쟁,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한겨레 출판사. pp.70

통일부. 2018. 『2017 북한 이해』. 통일교육원. pp.10

### ❖ 인터넷 , 신문 자료

북한, 1962년부터 중국으로 기울어.美 CIA 대통령 정보보고.

<http://news.kotra.or.kr> : KOTRA 홈페이지

<https://news.naver.com> (검색일: 2015.09.20)

경향 신문

동아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 ❖ 북한 자료 센터

- 로동신문 (1975~2018)
- 조선중앙년감 (1975~2018)
- 김정일선집

### ❖ 한국 외교부 자료

한국 외무부 자료. 1980. “북한사절단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0)”

한국 외무부 자료 (1979~1981)

## 2. 영문 자료

## ❖ 학술지

Do Dieu Khue. 2019. “Was the “China Factor” Working? U.S. Policies Towards Vietnam,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Late 1970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p.261.

Kin Phea. 2016. “Cambodia-North Korea Relations Since 1964: A Historical Review”. Vol.71. Northeast Asian Studies. pp.381-406.

Xiaorong Han. 2009. “Spoiled Guests or Dedicated Patriots? The Chinese in North Vietnam, 1954–1978”.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 No. 1. pp. 1–36.

## ❖ 책

Brun, Ellen and Jacques Hersh. 1976. *Socialist Korea: A case study i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Y: Monthly Review Press. pp. 21

## ❖ Wilson center

“Hungarian embassy in Canada, ciphered telegram, subject: Vietnamese-DPRK relations”. 8 june 1979.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5837>

## 3. 베트남어 자료

### ❖ 책

Hà Minh Hồng, Lư Văn Quyết, Phan Văn Cả, Lê Mậu Thành, Nguyễn Thế Trung. 2018 . *Việt Nam-Campuchia- 50 năm quan hệ hữu nghị, hợp tác (1967-2017)*. Hồ Chí Minh: Nhà xuất bản tổng hợp. pp. 43-70, 145-197

- Lê Văn Quang. 2005. *Quan hệ Việt - Mỹ, thời kỳ sau chiến tranh lạnh(1990-2000)*. Hồ Chí Minh: 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Quốc gia Thành Phố HCM. pp.52
- Lưu Văn Lợi. 2004. *Ngoại giao Việt Nam(1945-1995)*.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ông an Nhân dân.
- Lưu Văn Lợi. 2015. *Ngoại giao Việt Nam (1945-2000)*.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Sự thật
- Nguyễn Ngọc Dung. 2013 . *Vấn đề đồng minh chiến lược của Việt Nam - một cái nhìn lịch sử*. Hồ Chí Minh: 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ĐHQG-HCM
- Nguyễn Thị Hồng Vân. 2010. *Quan hệ Việt Nam-Liên Xô (1917-1991) Những sự kiện lịch sử*. Hà Nội: Viện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pp. 110-170 . pp.110-170)
- Phạm Phúc Vĩnh. 2016. *Quan hệ Việt Nam-Trung Quốc (1986-2006)*. Hồ Chí Minh: Đại học Quốc gia TP.HCM. pp.25-96
- Võ Đại Lực, Lê Bộ Lĩnh. 2005. *Quan hệ Việt-Nga trong bối cảnh quốc tế mới*. Hà Nội: Viện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pp.154-192

#### ❖ 신문 자료

Báo nhân dân Việt Nam (1989~2000): 베트남 인민 신문

<https://vnexpress.net>: 온라인 **vnexpress** 신문

<https://news.zing.vn>: 베트남 신문

#### ❖ 베트남 외교부 자료

<http://www.mofahcm.gov.vn>

## ❖ 베트남 국가 보고서

Văn kiện đại hội Đảng thứ 8 năm 1996, sách chính sách đối ngoại của Việt nam 1945 đến nay

## ❖ 인터넷 자료

“Đề cương tuyên truyền 90 năm ngày thành lập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Ban Tuyên giáo Trung ương Việt Nam, 2019

Nghị định thư giữa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về rà soát tình trạng hiệu lực của các điều ước và thỏa thuận quốc tế giai đoạn 1950-2007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2018. “30 năm thu hú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pp.34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và Thanh Toán Giữa Việt Nam Và Triều Tiên

<http://www.hcmup.edu.vn> : 베트남 사범 대학교 사이트

<http://btctlsdienbienphu.svhttdldienbien.gov.vn>: 디엔비엔푸 승리 박물관 홈페이지

<https://vnembassy-pyongyang.mofa.gov.vn>: 주북한 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trungtamwto.vn> : 베트남 WTO 센터 홈페이지

<https://cafebiz.vn> : 베트남 Cafebiz 잡지



##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North Korea after 1975**

NGUYEN THI THAO SUONG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et four research objectives. Firstly, analyzing the policies of Vietnam and North Korea toward communist countries to know the diplomatic attitudes of the two countries.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ac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Vietnam from the post-World War II to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Vietnam-North Korea relation. Another goal was to explain the factors that caused changes in Vietnam-North Korea relations at each time. Lastly, evaluating the role that North Korea and Vietnam are seeing each other which is considered the prospects in relation of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historical methods,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were used to analyz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r linking theory. This paper

looked into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which affect re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rst purpose, in the case of Vietnam, by looking at the overall flow of the policy, it can be classified into 4 different periods: Vietnam's resistance war against French colonialism, Anti-American resistance war, post-unification, and Post-cold war era. Looking at the overall flow of North Korea's policies toward communist countries, it can be seen from time to time that the pattern of progress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and its escape from Marxism-Leninism.

The second and third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amine the interac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Vietnam at different times from World War II to the present. Upon achieving these research objectives,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In this study, facts that occurred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five specific periods. The first period was 1975~1978. I called it 'falling from blood allies to the level of maintaining traditional relationships', and the second period was 1979~1993 - 'Deteriorating real relationships, political vigilance due to Doi Moi, increased economic trade', the third period was 1994~1999 - 'Continuous uncomfortable relations', the fourth period was 2000~2011 - 'Stable relationship recovery, active cooperation' and finally 2012 ~ Present: defined as 'Escape from solidarity based on ideology to a pragmatic route'.

The final purpose of the study is to evaluate the role of North Korea and Vietnam as they look at each other, that is, the prospect of bilateral relations. Regarding the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firs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bilateral relationship by considering Vietnam's position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ttitudes ov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Vietnam is becoming unable to look positively about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ssue. Vietnam is trying to open up reforms, but North Korea, which has an unfavorable view of reforms and

openings, has been showing rigidity to Vietnam. In other words, the route that the two countries are trying to go to is divided, making it difficult to cooperate effectively. Most of all, presently, in the Vietnamese media, when talk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North Korea, most of the expressions are “Chosun Peninsula,” “Nor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North Korea Reunification.” Vietnam has been showing this tren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Vietnam has become increasingly inclined to see North Korea in the framework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with Korea,” and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which are no longer North Korea itself. Therefore, in order to deepe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rom the North Korean point of view, Vietnam's reform and development gradually became popular, and it was also suggested that Vietnam should be considered as a role model.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escaping from ideological solidarity and is developing general relations between countries in the atmospher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modern era. In this interest, it is expec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unfold and recover and become brighter.